

시편과 다윗 모형에 기초한 예배 회복과 신앙 전통의 갱신에 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매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이종진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Jong Jin Le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RESTORING WORSHIP AND RENEWING FAITH TRADITION: A STUDY BASED ON THE PSALMS AND THE DAVIDIC MODEL

Jong Jin Lee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study examines the secularization crisis facing contemporary Korean Protestant worship and proposes a theologic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worship renewal grounded in the Psalms and the Davidic worship model. The rapid spread of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since the 1970s has introduced theological deficiencies into Korean worship, including humanistic lyrics, doctrinal vacuity, and the erosion of communal participation.

Employing an interdisciplinary methodology integrating biblical, historical, systematic, and practical theology, this research reestablishes the theological foundations of worship through the Psalms and David's tabernacle model, investigates the communal nature of worship from Old Testament sacrificial systems through New Testament ecclesiology, and conducts comparative case studies of the Taizé Community, Anglican liturgical tradition, and the Royal School of Church Music (RSCM). These three models, despite their diverse origins, converge on shared principles: God-centeredness, communal integrity, and a dynamic balance between tradition and renewal.

The study also addresses lessons from online worship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ractical proposals include Psalm-centered worship recovery, theological filtering of worship music, integrated traditional-contemporary worship models, restructuring for communal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education for worship renewal. The core contribution lies in diagnosing the Korean worship crisis as a theological identity crisis rather than a mere stylistic dispute, offering biblically grounded and actionable pathways for revitalization.

국문초록

시편과 다윗 모형에 기초한 예배 회복과 신앙 전통의 갱신에 관한 연구

이 종 진

미국, 뉴욕

본 연구는 현대 한국 개신교 예배가 직면한 세속화 위기를 진단하고, 시편과 다윗 모형에 기초하여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신앙 전통을 갱신하기 위한 신학적·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개신교는 1970년대 이후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유입과 확산으로 예배 문화에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학적 검증 없이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예배에 무비판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인본주의적 가사의 범람, 교리적 기반의 부재, 음악적 세속화와 공공성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예배자를 '참여자'에서 '관람자'로 전환시키고, 예배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신학적, 역사신학적, 조직신학적, 실천신학적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예배의 정의와 본질을 재정립하고, 시편에 나타난 찬양의 신학적 본질과 다윗의 장막 예배 모형이 지닌 역사적·신학적 의의를 분석하였다. 시편은 약 3,000년간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해 온 예배의 교과서로서, 정향·이탈·재정향이라는 세 유형의 시편이 인간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총체적 예배의 틀을 제공한다. 다윗의 예배 모형은 레위인 찬양대의 체계적 조직, 상시적 찬양, 음악과 신학의 통합이라는 원리를 통해 하나님 중심 예배의 모범을 보여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예배 공동체성의 신학적 근거를 구약의 5대 제사와 절기

체계, 신약의 초대교회 예배 전통에서 고찰하고, 종교개혁을 통한 예배 공동체성의 역사적 회복 과정을 추적하였다. 또한 떼제(Taizé) 공동체의 반복적 찬양과 공동기도, 성공회(Anglican Church)의 전례 중심 예배와 시편 찬탕, RSCM(영국 왕립교회음악협회)의 음악과 신학의 통합이라는 세 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예배 갱신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 세 사례는 서로 다른 신학적 전통에서 출발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성, 공동체성, 전통과 갱신의 균형이라는 공통된 예배 원리를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온라인 예배 경험이 남긴 교훈을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에 기술과 예배 본질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한국 개신교 예배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서, 시편 중심 예배의 회복, 신학적 필터링과 예배 교육의 체계화, 전통과 현대의 통합적 예배 모델 구축,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예배 구조 재편, 감정에서 존재로의 영성 회복, 그리고 예배 갱신을 위한 지도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기여는 한국 교회 예배 위기의 원인을 단순한 음악 장르의 문제가 아닌 신학적 정체성의 위기로 진단하고, 시편과 다윗 모형이라는 성경적 기초 위에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예배 갱신의 방향을 제시한 점에 있다.

목차

감사의 글	x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문제 제기: CCM 중심 예배의 신학적 약화와 세속화 현상	4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제 2 장 예배의 성서적·신학적 기초: 시편과 다윗 모형	9
2.1 예배의 정의와 본질적 의미의 확장	9
2.2 시편에 나타난 찬양의 신학적 본질	13
2.3 다윗의 장막과 예배 모형의 역사적 의미	16
2.4 구약의 예배 전통: 5 대 제사와 공동체성	19
2.5 신약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	22
제 3 장 예배와 공동체성: 성경적·역사적 고찰	25
3.1 예배 공동체성의 신학적 근거	25
3.2 예배의 구성 요소와 공동체성: 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	28
3.3 종교개혁을 통한 예배 공동체성의 역사적 회복	33
제 4 장 현대 한국 개신교 예배 찬양에 대한 비판적 고찰	37
4.1 한국 교회 CCM 도입 과정과 현황	37
4.2 감성 중심 예배의 빛과 그림자: 신학적 검증의 부재 문제	40
4.3 예배의 본질 변질: 세속적 요소의 혼합 현상 분석	43
4.4 예배 회복을 위한 신학적 기준	46

제 5 장 신앙 전통의 갱신을 위한 비교 사례 연구	49
5.1 떤제(Taizé) 공동체: 반복적 찬양과 공동기도의 영성	49
5.2 성공회(Anglican Church): 전례 중심 예배와 시편 찬탕	52
5.3 RSCM(영국 왕립교회음악협회): 음악과 신학의 통합	54
5.4 비교 분석: 세 가지 모델의 통합적 의미	57
5.5 한국 교회를 위한 적용 가능성	59
제 6 장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와 공동체성 회복	62
6.1 팬데믹이 남긴 예배적 시사점	62
6.2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과 한계	64
6.3 변경 예배의 교훈과 미래 온라인 예배의 방향	67
6.4 광주양림교회 사례: 기술과 본질의 조화	69
제 7 장 한국 개신교 예배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제안	72
7.1 시편 중심 예배(Psalm-centered Worship)의 회복	72
7.2 신학적 필터링과 예배 교육의 체계화	74
7.3 전통과 현대의 통합: 균형 잡힌 예배 모델	77
7.4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예배 구조 재편	79
7.5 예배의 영성 회복: 감정에서 존재로	82
7.6 결론적 제안: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핵심 방향	84
제 8 장 결론: 새로운 부흥을 위한 신앙 전통의 갱신	87
8.1 예배 갱신을 위한 지도자 교육 방향	87
8.2 연구 요약 및 시사점	89
8.3 제안: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향하여	92

참고문헌 96

감사의 글

본 논문이 결실을 맺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논문의 끝맺음과 더불어 지도교수님이신 김영래 교수님을 통하여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인내로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깊은 통찰력으로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곁에서 이 긴 여정을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준 사랑하는 아내 김은옥 사모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아빠를 믿어주고 응원하며 격려해 준 자랑스러운 아들 이은호, 딸 이은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늘 묵묵한 응원과 격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문이 한국 교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6. 5.

이종진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현대 한국 개신교 예배가 마주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편과 다윗 모형에 기초한 예배 회복과 신앙 전통의 갱신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¹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교회의 생명이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²

한국 개신교 예배의 위기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개신교 인구는 1984년 16%에서 2021년 17%로 정체 상태에 있으며, 절대 신자 수는 감소 추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층의 교회 이탈 현상으로, 20-30대의 교회 출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예배의 세속화와 신학적 정체성의 약화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젊은 세대는 피상적이고 감성적인 예배보다 진정성 있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

연구자는 2007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예배학(Introduction to the Liturgy)과 찬송가학(Hymnology)을 수학하며 예배 전례의 전통적 형식과 찬양의 신학적 비중을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³ 학부 시절 교회음악 전공자로서 모세 시대의 성전 예배가 다윗의 통일왕국을 거쳐 솔로몬 성전에서 완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¹ 오대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목회학박사논문, Drew University, 2023), 1-5.

² 최현구, 「예배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목회학박사논문, Drew University, 2025), 2-3.

³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49-69.

연구하며,⁴ 가장 모범적이었던 당시의 예배 모델을 현대에 구현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유입된 CCM의 영향력이 2000년대 들어 예배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신학적 검증의 약화와 개인적 감성 중심의 곡조가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뜨거운 감성적 반응은 이끌어 내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 CCM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면, 1970년대 미국에서 소개된 Jesus Movement의 영향을 받은 찬양 음악이 1980-90년대 한국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은누리교회의 찬양 운동, 햇불 찬양, 경배와 찬양 등의 운동이 예배 문화를 변화시켰고, 2000년대 이후에는 Hillsong, Bethel Music, Elevation Worship 등 해외 CCM의 직접적인 영향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교회 고유의 예배 신학과 전통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더욱이, SNS와 유튜브를 통한 찬양 콘텐츠의 급속한 확산은 신학적 검증의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 개별 교회가 신학적 검토 없이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찬양을 즉각적으로 예배에 도입하는 경향은 예배의 질적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이고 신학적인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전통 예전(Liturgy)의 회복을 통해 한국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도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새로운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단순히 학문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예배의 위기에 대한 절실한 응답이다. 한국 교회의 예배

⁴ Ibid., 53.

현장을 관찰하면,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외적 화려함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예배의 내적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모순적 현상이 두드러진다. 대형 스크린, 화려한 조명, 전문적인 밴드 연주 등 외적 환경은 급속히 발전했지만, 예배자들의 신앙적 성숙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탈종교화’ 경향은 교회의 예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리서치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를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외적 도전 앞에서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예배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이며, 교회의 위기는 곧 복음 선포의 위기이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지만, 이 제자 양성의 핵심 현장이 바로 예배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제자 양성의 기반이 무너지고, 제자 양성이 무너지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약화된다. 따라서 예배 회복은 단순한 예배학적 과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론적 과제이다.

한국 개신교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선교사들이 전래한 예배 형식은 주로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후 한국 교회는 독자적인 예배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새벽기도회, 부흥회, 통성기도 등 한국 특유의 예배 형태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독창적 예배 형태는 한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CCM과 열린예배 운동의 확산과 함께 전통적 예배 형식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 고유의 예배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서구의 최신 예배 트렌드를 무비판적으로 수입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편과 다윗 모형이야말로

현대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가장 확실한 성경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본 연구에 임하였다. 시편은 약 3,000 년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해온 예배의 교과서이며, 다윗의 예배 모형은 음악과 찬양을 통한 하나님 중심 예배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경적 모형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한국 교회 예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예배 위기의 원인을 외적 요인(세속화, 탈종교화, 디지털 문화)에서만 찾지 않고, 교회 내부의 신학적 빈곤에서도 찾고자 한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은 하면서도, ‘왜’ 예배하는가, ‘무엇을’ 예배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예배의 형식(how)이 내용(what)과 목적(why)을 압도하는 현상은 예배의 본질적 전도(顛倒)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도를 바로잡기 위한 신학적·실천적 작업이다.

1.2 문제 제기: CCM 중심 예배의 신학적 약화와 세속화 현상

현대 CCM 중심 예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야기하며 예배의 본질적 의미인 "하나님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첫째, 인본주의적 가사의 범람이다. 하나님 중심의 경배보다 예배자의 감정과 위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거룩한 경외심보다 인간의 심리적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둘째, 교리적 기반의 부재이다. 전통 찬송가가 성경적 교리와 공적 고백을 담고 있는 반면, CCM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나 추상적인 사랑 고백에 치우쳐 있어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음악적 세속화와 공공성 약화이다. 음악적 기술은 뛰어나나 성경적

성찰이 부족한 곡들이 무분별하게 선곡되면서, 예배 음악으로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과도한 불협화음과 감각만을 자극하는 화성은 예배 음악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정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구조적 문제를 형성하고 있다. 인본주의적 가사는 교리적 기반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고, 교리적 기반의 부재는 음악적 세속화를 촉진하며, 음악적 세속화는 다시 인본주의적 가사를 양산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부 CCM 찬양의 가사에서 ‘하나님’이나 ‘예수’ 또는 ‘그리스도’ 라는 직접적 호칭 없이 ‘당신’, ‘그분’, ‘사랑’ 등의 추상적 표현만으로 가사가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사는 맥락을 제거하면 세속적 사랑 노래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마저 발생한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심판, 회개와 같은 복음의 다른 중요한 차원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될 때 심각한 신학적 편향이 발생한다.

또한 예배 찬양의 선곡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많은 교회의 찬양팀에서는 찬양 선정 기준이 ‘회중의 반응’이나 ‘음악적 완성도’에 치우쳐 있으며, 해당 찬양의 신학적 내용에 대한 검토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부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찬양 인도자가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곡을 그대로 예배에 가져오는 관행은, 예배 음악 선정의 주도권이 교회의 신학적 판단이 아닌 대중문화의 트렌드에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예배 전쟁(Worship War)’이라 불리는 세대 간 갈등도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전통적인 찬송가를 선호하는 장년층과 현대적인 CCM을 선호하는 청년층 사이의 갈등은 많은 교회에서 심각한 분열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음악적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세대 모두가 예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CCM의 확산은 또한 예배에서의 회중 참여 구조를 변화시켰다. 전통 찬송가가 회중 전체가 동일한 선율을 함께 부르는 일체적(unison)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면, 현대 CCM은 종종 찬양팀의 리드 보컬과 회중 사이의 간극을 만들어낸다. 높은 음역대, 복잡한 리듬 구조, 잦은 곡의 교체는 회중이 능동적으로 찬양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는 예배자를 '참여자'에서 '관람자'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예배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학문적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신학적 방법으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배의 원리와 모형을 분석한다. 둘째, 역사신학적 방법으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현대에 이르는 예배 전통의 발전 과정을 고찰한다. 셋째, 조직신학적 방법으로 예배의 신학적 본질과 공동체성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탐구한다. 넷째, 실천신학적 방법으로 현대 예배 사례들을 분석하고 한국 교회를 위한 실천적 제안을 도출한다. 이 네 가지 방법론의 통합적 접근은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를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균형 있게 다루게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주로 한국 개신교에 초점을 두되, 비교 연구를 위해 서구 교회의 사례를 함께 다룬다. 시간적 범위는 성경 시대부터 현대까지를 포괄하지만,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20세기 이후의 상황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본 논문은 전통예배형식의 중요성과 시편 찬양의 신학적 본질을 역설하고

찬양의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하여 현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예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시편과 다윗 모형을 통한 예배의 신학적 기초를 정립한다. 둘째, 예배 공동체성에 대한 성경적·역사적 고찰을 통해 예배와 공동체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떼제 공동체, 성공회 예전, RSCM 사례를 연구하여 신앙 전통의 갱신 모델을 제시한다. 넷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의 교훈을 통해 현대 예배 공동체성 회복의 방향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개신교 예배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 결론을 맺는다.

본 연구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은 예배학이 본질적으로 여러 신학 분야의 교차점에 위치한 학문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예배학은 성경신학의 기초 위에 역사신학의 전통을 수용하고, 조직신학의 체계 안에서 실천신학적 적용을 모색하는 통합적 학문이다. 따라서 단일 방법론으로는 예배의 복잡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다양한 방법론의 통합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성경신학적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는 특히 시편의 문학적 구조와 신학적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시편의 장르 분류(찬양 시편, 탄식 시편, 감사 시편, 지혜 시편 등)에 기초한 예배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현대 예배가 회복해야 할 찬양의 다양한 차원을 제시한다. 또한 역대기를 중심으로 다윗의 예배 제도와 레위인 찬양대의 구성 원리를 분석하여, 예배 음악 사역의 성경적 모형을 도출한다.

역사신학적 방법에 있어서는 디다케(Didache), 유스티누스 마르티르(Justin Martyr)의 제 1 변증서,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 등 초대교회 문헌에 나타난 예배 전통을 분석하고, 이것이 종교개혁기와 이후의 예배 전통에 어떻게 계승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예배의 ' 변하지 않는 핵심(invariable core)' 과 ' 변할 수 있는 형식(variable form)' 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조직신학적 방법에 있어서는 삼위일체론, 교회론, 성례론의 관점에서 예배의 본질을 탐구한다.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삼위일체적 사건이다. 이러한 삼위일체적 예배 이해는 예배가 단순한 인간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의 일부임을 분명히 한다.

본 연구는 또한 비교 연구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폐제 공동체, 성공회 전례, RSCM 등 서로 다른 전통에 속한 예배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전통의 강점을 확인하고 한국 교회에 적용 가능한 원리를 추출한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특정 전통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예배 원리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본 연구가 주로 문헌 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규모 설문조사나 현장 실험 등의 경험적 연구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적 제안들을 실제 교회 현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 2 장 예배의 성서적 · 신학적 기초: 시편과 다윗 모형

2.1 예배의 정의와 본질적 의미의 확장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만남이며, 그 만남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예배는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이기도 하다.

예배(Worship)의 어원은 앵글로색슨어 "Weorthscipe"에 근거하며, 이는 "가치(Worth)"와 "신분(Ship)"의 합성어로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⁵ 을 의미한다. 앤드류 힐(Andrew Hill)은 예배를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그분을 찾는 탐색"⁶ 으로 정의하며 내면의 의도를 강조한다.

제임스 F. 화이트(James F. White)는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⁷ 이 정의는 예배가 인간의 자발적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grace)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건이며, 인간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자로 존재한다.

폴 훈(Paul W. Hoon)은 예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⁸ "참된 예배는

⁵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17.

⁶ Andrew Hill, *Enter His Courts With Praise* (Eastbourne: Kingsway Publication, 1998), 32-33.

⁷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23.

⁸ Paul W. Hoon, *The Integrity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15.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이다." 이처럼 예배는 단순한 의식적 참여가 아니라 존재론적 변화(transformation)를 포함하는 사건이며, 이는 예배가 신앙 형성의 핵심적 통로임을 의미한다.

알렉산더 슈메만(Alexander Schmemmann) 역시 예배의 본질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더욱 확장한다. 그는 예배를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건"⁹으로 이해하였다: "예배는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사건이다." 이 관점은 예배가 단지 교회 내부의 활동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한 선교적 사건임을 보여준다.

신학적으로 예배는 "백성(Laos)"과 "일(Ergon)"의 합성어인 "레이투르기아(Leitourgia)"로 표현되는데, 이는 예배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자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을 시사한다.¹⁰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샤하(שָׁחָה)”는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를 뜻하며, 이는 예배가 단순한 정신적 행위가 아니라 전인적 헌신의 행위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언어적 뿌리는 예배가 지적 동의를 넘어 온 존재의 향복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시사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며, 이 낮춤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은 가장 높은 존엄성을 회복한다.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사 이상의 것임을 강조한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은혜와 응답, 변화와 파송의 사건이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변화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된다. 이러한 예배의 구조는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⁹ Alexander Schmemmann, *For the Life of the World*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73), 27.

¹⁰ 이성호,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서울: 좋은씨앗, 2020), 21-23.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정결케 된 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라고 응답하는 패턴과 일치한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토르가우 성 헌당예배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rede),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말하는(reden) 것,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¹¹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만남(Meeting between God and His people)"¹² 이라고 정의한다. 이 만남은 일회성이 아닌 삶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만남이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하면, 예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에 기초한 응답적 성격, 둘째 인간의 전 존재를 포함하는 전인적 성격, 셋째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성격, 넷째 현재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종말론적 성격이다. 이 네 가지 특성은 현대 한국 교회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예배 회복의 목표가 된다.

이 네 가지 특성을 더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배의 응답적 성격은 하나님의 주도성(divine initiative)을 전제한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 이는 예배가 인간의 종교적 본능의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응답임을 의미한다. 로마서 10장 14절의 “그들이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는 말씀은 이 원리를 잘 보여준다.

둘째, 예배의 전인적 성격은 예배가 지적·정서적·의지적·신체적 차원을

¹¹ 오대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23.

¹² 로버트 E. 웨버, 『예배학(Worship-Old and New)』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8.

모두 포함함을 의미한다. 신명기 6장 5절의 쉼마(Shema)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듯이, 예배는 인간 존재의 어떠한 차원에만 국한될 수 없다. 현대 예배가 종종 감성적 차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은 이러한 전인적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셋째, 예배의 공동체적 성격은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강조된다. 구약의 절기 예배, 회당 예배, 성전 예배는 모두 공동체적 모임을 전제하며, 신약의 교회 예배 역시 “함께 모여” (고전 11:20, 14:23)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 경건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

넷째, 예배의 종말론적 성격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풍부하게 드러난다. 요한계시록 4-5장의 천상 예배 장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궁극적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상의 예배는 이 천상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이며, 동시에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은 예배가 현재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상기시킨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용어는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이다. 이 단어는 원래 노예가 주인에게 드리는 봉사를 의미했으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봉사로 사용된다(롬 12:1).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영적 예배’가 바로 이 ‘라트레이아’이다. 이는 예배가 주일 예배당에서의 한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구약의 제사 체계 전체가 예배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배의 정의는 더욱 풍부해진다. 번제(올라)가 전적 헌신을, 소제(민하)가 감사와

현물을, 화목제(셀라뮴)가 고제와 나눔을, 속죄제(하타트)가 죄 고백과 용서를, 속건제(아삼)가 보상과 회복을 각각 상징하듯이, 진정한 예배는 이 모든 차원을 포괄하는 총체적 사건이다.

2.2 시편에 나타난 찬양의 신학적 본질

시편은 단순한 찬송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의 기록이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시편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신앙의 언어이다."¹³ 이는 시편이 기쁨, 슬픔, 탄식, 분노, 감사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예배는 인간의 전 존재를 포함하는 총체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시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시편은 영혼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는 거울이다."¹⁴ 이 표현은 시편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신학적 텍스트임을 잘 보여준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시편을 공동체적 기도로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⁵ "시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지는 공동체의 기도이다." 이는 시편이 개인적 목상을 넘어서 공동체적 예배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시편 찬양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선포이다. 브루그만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⁶ "시편의 찬양은 하나님이

¹³ Walter Brueggemann, *The Message of the Psalms* (Minneapolis: Augsburg, 1984), 19.

¹⁴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1 (Grand Rapids: Baker, 1993), xxxvii.

¹⁵ Dietrich Bonhoeffer, *Psalms: The Prayer Book of the Bible* (Minneapolis: Augsburg, 1970), 15.

¹⁶ Walter Brueggemann, *Israel's Prais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3.

왕이심을 선포하는 정치적이며 신학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는 예배 음악 선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는 신학적 행위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배 찬양의 가사는 얼마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선포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마르틴 루터 역시 시편의 탁월성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시편은 성인들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책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죽음과 삶, 희망과 절망, 은혜와 심판 -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시편을 예배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곡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편이 담고 있는 신학적 깊이와 신앙의 진솔함을 예배 전체에 되돌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후 시편 113-118 편(유월절 찬송)의 일부를 부르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 편을 인용하실 만큼 시편은 예배의 중심이었다. 찬양을 위해서는 주로 옛 시편들이 사용되었으며,¹⁷ 차츰 새로운 시편들이 작곡되기도 하였다.

시편의 장르 분류는 현대 예배 회복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브루그만의 분류에 따르면, 시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향(orientation)의 시편, 이탈(disorientation)의 시편, 재정향(new orientation)의 시편이다. 정향의 시편은 하나님의 질서와 복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시 1 편, 8 편, 145 편 등), 이탈의 시편은 고통, 상실, 혼란 속에서의 탄식과 호소를 담고 있으며(시 13 편, 22 편, 88 편 등), 재정향의 시편은 위기를

¹⁷ William D.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정장복 역 (서울: 콤팩출판사, 1998), 15.

넘어선 후의 새로운 감사와 찬양을 표현한다(시 30 편, 40 편, 138 편 등).

이 세 유형의 시편이 예배에 골고루 활용될 때, 예배는 인간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총체적 사건이 된다. 그러나 현대 한국 교회 예배에서 사용되는 찬양의 대부분은 정향의 시편에 해당하는 기쁨과 찬양 중심의 곡들이며, 이탈의 시편에 해당하는 탄식과 회개의 곡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시편 150 편 중 약 3분의 1이 탄식 시편이라는 사실은, 현대 예배가 신앙 경험의 중요한 차원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편의 교차대구법(chiastic structure)과 대구법(parallelism)은 시편의 신학적 깊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문학적 장치이다. 히브리 시편의 대구법은 동의적 대구법(synonymous parallelism), 반의적 대구법(antithetical parallelism), 종합적 대구법(synthetic parallelism)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학적 구조는 시편의 내용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묵상하게 하며, 반복적으로 노래할 때 그 의미가 깊이 각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떼제 공동체의 반복적 찬양 방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시편 150 편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tau\omicron\eta$, 헤세드)이다. 이 단어는 시편에 약 127 회 등장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긍휼, 충성을 포괄하는 언약적 개념이다. 시편 136 편은 모든 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을 반복하는데, 이 후렴의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이다. 이 개념은 현대 예배 찬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기준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시편이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편의 표제어에 나타나는 “인도자를 위한 노래”, “비파에 맞추어”, “기혼의 곡조에 맞추어” 등의 지시는 시편이 단순히 읽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음악과 함께 불려지는 예배 텍스트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셀라(נָלָה)”라는 표현은 음악적 간주나 묵상을 위한 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시편 예배가 노래와 침묵, 선포와 묵상이 교차하는 리듬감 있는 예배였음을 시사한다.

2.3 다윗의 장막과 예배 모형의 역사적 의의

다윗의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열정적 예배였다.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은 다윗의 예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¹⁸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의 연속이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예배자였으며, 그의 정체성은 정치적 권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특히 다윗은 예배를 전문화하였다. 그는 레위인들을 조직하여 찬양대를 구성하고,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웨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윗은 예배를 체계화하고, 음악과 예전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¹⁹ 또한 다윗의 예배는 감정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예배였다. 이는 오늘날 감성 중심 예배와 대비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다윗의 장막은 신약 교회 예배의 예표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도행전 15 장에서 야고보는 다윗의 장막 회복을 언급하며, 이를 이방인 구원과 연결한다. 이는 다윗의 예배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향한 신학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준다.

역대상 25 장은 다윗이 음악 사역자를 조직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아삽,

¹⁸ Eugene H. Peterson, *Leap Over a Wall* (San Francisco: HarperCollins, 1997), 45.

¹⁹ 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Zondervan, 1994), 112.

해만, 여두둔 가문에서 총 288 명의 찬양 사역자들이 훈련받아 성전 예배 음악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언(神言)을 받은 자들” (대상 25:1)로 묘사된다. 이는 예배 음악 사역자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영적 감수성과 신학적 훈련을 겸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오늘날 찬양팀을 세우고 훈련하는 교회들이 이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다윗의 예배 혁신 중 특별히 주목할 것은 “상시적 찬양(perpetual praise)”의 개념이다. 역대상 16 장 37 절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주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라고 기록한다. 이는 예배가 특별한 날의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상적 삶의 중심임을 보여준다. 이 원리는 현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넘어 일상적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역대상 6 장 31 절과 역대상 15 장을 보면, 다윗 시대 예배음악 담당자들은 음악 전문가인 동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 중에 나타나는데(대하 5:11-14), 이때 예배의 주요 요소는 제물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찬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 예배와 예배음악이 점점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찬양과 영광이 인간을 향하게 되고 예배는 점점 예배자의 취미와 기호에 맞춰지게 된다. 이에 선지자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비판하고 책망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 6:6)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암 5:23)

다윗의 장막 예배가 이전의 모세 장막 예배와 구별되는 점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정교한 제사 의식이 예배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서는

법궤가 노천에 놓여있었고, 레위인 찬양자들이 법궤 앞에서 지속적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변화는 예배의 접근성과 직접성을 크게 높인 혁신이었다.

이 변화가 신약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심오하다. 사도행전 15 장 16-17 절에서 야고보가 아모스 9 장 11-12 절을 인용하며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라고 말할 때, 이는 다윗의 장막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예언적 모형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다윗의 장막에서 법궤 앞에 직접 나아가 찬양하던 모습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히 4:16)의 예표로 이해할 수 있다.

다윗의 예배 조직 체계는 놀랍도록 정교하였다. 역대상 25 장에 기록된 288 명의 찬양 사역자들은 24 반으로 나뉘어 교대로 봉사하였으며, 이들은 단순히 음악적 기술만이 아니라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신탁을 전하는” 예언적 사역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현대 교회의 찬양팀 조직과 운영에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찬양 사역은 전문성과 영성을 동시에 요구하며, 체계적인 조직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다윗 시대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예배의 다양한 형태가 공존했다는 점이다. 찬양과 경배뿐만 아니라 춤(삼하 6:14), 악기 연주(대상 15:16), 선포(대상 16:8-36), 감사(대상 16:34), 기도(대상 17 장) 등 다양한 예배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예배가 특정 형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전 존재를 동원한 총체적 표현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윗의 예배 모형을 현대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다윗의 예배는 구약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신약의 빛 아래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윗의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로 완성되었으므로 문자적으로 반복할 수 없다. 그러나 번제에 담긴 '전적 헌신'의 정신, 화목제에

담긴 '공동체적 나눔'의 정신, 찬양에 담긴 '하나님 중심'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효하다. 현대 교회가 다윗의 예배 모형에서 배워야 할 것은 특정한 외적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관통하는 영적 원리이다.

2.4 구약의 예배 전통: 5대 제사와 공동체성

구약 이스라엘의 예배 생활에서 안식일은 공동체적 예배의 주기적 리듬을 형성하였다. 안식일은 단순한 노동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는 거룩한 모임($\alpha\lambda\lambda\eta\lambda\iota\sigma\mu\acute{o}\varsigma$, miqra qodesh)이었다(레 23:3).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써 공동체적 정체성을 갱신하였다. 이 안식일 예배의 전통은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Lord's Day worship)로 계승되었으며, 오늘날 주일 예배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

레위기기에 나타난 5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형식이다. 이 5가지 예배 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웃과의 나눔 및 섬김, 민족 간의 평화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사법을 통한 "공동체성"이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구약의 5대 제사 중 화목제($\delta\iota\iota\mu\lambda\iota\sigma\mu\acute{o}\varsigma$, 쉐라뫼)는 특별히 공동체성을 드러낸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일부를 제사장에게, 나머지를 제사 드리는 자와 그 가족 및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이다. 이는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회복하는 사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의 성찬이 이 화목제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찬의 회복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배 공동체성 회복의 핵심이다.

또한 유월절 예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사건이었다. 신명기 16 장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에서 드리도록 명하셨으며, 이는 예배가 개인의 사적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공적 행위임을 강조한다. 초대교회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선포했던 것처럼(고전 11:26),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구약 예배의 공동체성은 단순한 종교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신앙 교육 시스템이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기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였고(신 6:20-25), 이 전달의 핵심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재현하는 구원의 이야기였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는 명령은 공동체적 예배의 맥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된다.

성찬과 세례라는 기독교의 두 성례 역시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고린도전서 10 장 16-17 절은 "우리가 떤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라고 말씀한다. 이 "참여"의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로, 교제와 연합, 즉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²⁰

구약 예배의 공동체적 차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절기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위기 23 장에 기록된 7 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다. 이 절기들은

²⁰ Schmemann, *For the Life of the World*, 34.

단순한 종교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재현하는 예배적 사건이었다.

특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절기였다. 출애굽기 12 장의 유월절 규정은 가족 단위로 어린양을 잡아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적 의식을 상세히 기술한다. 이 식사는 출애굽 사건을 단순히 '기억'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마치 자신이 직접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재경험' 하는 사건이었다. 이 원리는 기독교 성찬의 핵심이기도 하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다.

번제(חֹטֵאֵת, 올라)는 '올라가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제물 전체가 불에 타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는 예배자의 전적 헌신을 의미하며, 로마서 12 장 1 절의 “산 제사”의 구약적 배경이 된다. 소제(חֹטֵאֵת, 민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인간 노동의 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다. 이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며, 일상의 삶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속죄제(חַטָּאת, 하타트)와 속건제(חֻטְאֵת, 아삼)는 예배에서 죄 고백과 회개의 차원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현대 예배에서 죄 고백의 시간이 점차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은, 이러한 구약 예배의 중요한 차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진정한 찬양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더욱 풍성해진다. 시편 51 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간음과 살인을 통절히 회개한 후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리이다” (시 51:15)라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와 찬양의 불가분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이다.

대속죄일(יִוֵּם קִפּוּרֵי, 욘 키푸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날로, 구약 예배의 절정이었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은 히브리서 9-10 장에서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의 예표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 체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신약 예배의 신학적 기초를 형성한다.

2.5 신약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

신약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한다. 신약성경에서 59 회나 사용되는 $\pi\rho\sigma\kappa\upsilon\nu\acute{\epsilon}\omega$ (프로스쿠네오)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뜻을 담아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

신약 예배에서 성령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 장 23-24 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통한 예배를,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기초한 예배를 의미한다. 이는 신약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진리라는 두 축 위에서 있음을 보여준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사도행전 2 장 42 절에서 네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요소-교육(didache), 교제(koinonia), 성찬(breaking of bread), 기도(proseuche)-는 오늘날 균형 잡힌 예배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현대 한국 교회 예배가 이 초대교회 예배의 기본 구조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예배 개혁의 출발점이다.

신약에 나타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배의 주체가 제사장에서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²¹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31.

대속하는 산제물로 드려짐을 통해 나타난 변화이다. 신약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자가 성전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²²

신약 예배의 독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이 예배에 가져온 근본적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주로 특정 장소(성전, 장막)에 제한되었으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요 1:14) 예배의 공간적 제약이 근본적으로 극복되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요 4:21-23)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변화를 선언하신 것이다.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4 장 26 절은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은 초대교회 예배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바울의 예배 신학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σῶμα Χριστοῦ)” 으로서의 교회 이해이다. 고린도전서 12 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몸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교회론적 이해는 예배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예배는 한 사람의 독무대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²²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65.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 사건이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대교회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여기서 ‘시(ψαλμοί, 프살모이)’는 구약 시편을, ‘찬미(ᾠμοί, 힘노이)’는 교회가 창작한 찬미가를, ‘신령한 노래(ὁδοὶ πνευματικαί, 오다이 프네우마티카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즉흥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초대교회 예배 음악이 전통(시편)과 창작(찬미가), 그리고 영감(신령한 노래)의 세 차원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에베소서 5장 18-21절은 또한 예배와 일상의 관계를 보여준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예배적 삶의 기초로 제시한다. 성령 충만한 삶은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순복으로 표현되며, 이것이 곧 일상의 예배이다.

요한계시록의 천상 예배 장면은 신약 예배 신학의 완성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4장의 네 생물과 24 장로의 찬양, 5장의 어린양 찬양, 7장의 만국 백성의 찬양, 그리고 19장의 할렐루야 합창은 점차 확대되는 예배의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이 천상 예배는 지상 예배의 궁극적 모형이며, 지상의 모든 예배는 이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2-24절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를 확인해준다.

제 3 장 예배와 공동체성: 성경적 · 역사적 고찰

3.1 예배 공동체성의 신학적 근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일 뿐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적 연합에 있다. 예배는 "우리"의 고백이며,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적 신앙으로 확장시키는 통로이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공동체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³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실제이다." 이 말은 공동체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실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배 공동체는 인간이 구성하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 공동체이다.

또한 그는 『공동생활(Life Together)』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²⁴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예배가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필수 요소임을 분명히 한다. 신약성경 역시 공동체적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히브리서 10 장 25 절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권면하며, 공동체적 예배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공동체 예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⁵ "교회는

²³ Dietrich Bonhoeffer, *Life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1954), 26.

²⁴ *Ibid.*, 27.

²⁵ Alexander Schmemmann, *Introduction to Liturgical Theology*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66), 15.

예배를 통해 비로소 교회가 된다." 즉,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 그 자체이다.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 역시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신학적 원리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개인화된 신앙과 “가나안 성도” (교회 공동체를 떠난 그리스도인) 현상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신학적 문제이다. 공동체적 예배를 떠난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결책은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공동체의 갱신이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예배 공동체성의 힘은 명확히 드러난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일어났다. 이 부흥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특출한 설교자의 역량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임한 성령의 역사였다. 이는 예배 공동체성이 한국 교회 부흥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한다. 오늘날도 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 갱신의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현대 신학자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공동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⁶ "오늘날 사람들은 소속(belonging)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는 예배 공동체가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공간임을 보여준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도 예배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확인해준다. 키프리아누스(Cyprian)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 라고 선언하며 공동체적 신앙의 불가결성을 강조하였다.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는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라는 원리를 통해 예배 공동체의 구체성과 가시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²⁶ Leonard Sweet, *Postmodern Pilgrims*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78.

초대교회의 공동체 신학은 현대의 개인주의적 신앙 이해에 강력한 도전을 제기한다.

공동체성의 신학적 근거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론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교제 안에 계신 공동체적 존재이시다. 신학적으로 이를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상호내재)'라 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시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창조되었다면, 인간의 공동체성은 이 삼위일체적 공동체의 반영이다. 따라서 예배 공동체는 단순한 사회적 모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지상에서 반영하는 신학적 실재이다.

요한 지지올라스(John Zizioulas)는 그의 저서 『공동체로서의 존재(Being as Communion)』에서 인간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임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관계 밖에서는 진정한 인격이 될 수 없으며, 이 원리는 예배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배 안에서 개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동시에 경험하며, 이 이중적 관계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인격적 존재로 서게 된다.

한국 교회의 '가나안 성도' 현상은 이러한 공동체 신학의 관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나안 성도'란 '안 나가'를 거꾸로 읽은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 교회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공동체 이탈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본회퍼가 경고했듯이, "자신의 꿈을 사랑하는 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는 공동체를 세운다." 완벽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은 현실의 불완전한

공동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이미 완성된 이상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고린도교회는 분쟁, 음행, 이단, 성찬 오용 등 온갖 문제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고전 1:2)라 불렀다. 문제가 가득한 공동체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탈이 아니라 갱신이다. 이것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예배 공동체성 회복의 신학적 전제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공동체적 예배의 힘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1907년 평양대부흥뿐만 아니라, 1919년 3·1 운동에서 교회 공동체가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것,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교회가 억눌린 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 그리고 현대에도 재난과 위기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사회적 연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모두 예배 공동체의 사회적 힘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3.2 예배의 구성 요소와 공동체성: 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

예배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 모든 요소는 공동체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는 각각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적 행위이다.

예배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 외에도, 공동체적 예배를 구성하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다. 성경 봉독(Scripture reading)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행위로, 설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예배 요소이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독서와 권면과 가르치는 것”을 명하는데, 여기서 ‘독서’는 공적 성경 봉독을 의미한다. 현대 한국 교회에서 성경 봉독이 설교 본문 낭독으로만 축소된 것은 이 중요한 예배 요소의 약화를 의미한다.

신앙 고백(Creed)도 공동체 예배의 핵심 요소이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 암송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선포하는 행위이다. 현대 한국 개신교에서 신앙 고백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예배 공동체의 교리적 기반이 약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봉헌(Offering)도 공동체적 예배의 중요한 차원이다. 봉헌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행위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채워가는 나눔의 행위이다. 구약의 화목제에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듯이, 봉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동시에 표현하는 공동체적 행위이다.

또한 예배에서의 '평화의 인사(Passing of the Peace)'는 초대교회 이래 중요한 예배 요소였다. 바울은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롬 16:16, 고전 16:20)고 권면한다. 이 인사는 형식적 의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된 공동체임을 몸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다. 성찬 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전통은 마태복음 5장 23-24 절의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제물을 드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다.

이러한 다양한 예배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룰 때, 예배는 참된 의미의 공동체적 사건이 된다.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압도하거나, 특정 요소가 생략될 때 예배의 균형은 깨진다. 현대 한국 교회 예배의 전형적인 구조가 '찬양 + 설교 + 기도'로 단순화된 것은, 성경 봉독, 신앙 고백, 성찬, 봉헌, 평화의 인사 등의 중요한 요소들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 기도

기도는 개인의 간구를 넘어서 공동체의 연합을 형성하는 행위이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²⁷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행위이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 장 42 절에서 "기도에 힘쓰며"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는 교회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였다. 기도는 헬라어 원어로 "프로슈코마이"인데, "목숨"과 "숨"의 뜻을 갖는다.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숨이 끊기고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것이다.

(2) 설교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설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재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설교는 개인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예배에서 설교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 미사를 독일어 예배로 전환하면서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말씀 선포가 강조되었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매일 성경 강해 설교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말씀으로 형성하는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통에서 설교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현재적으로 임하는 사건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가 때로 예배의 다른 요소들을 압도하는

²⁷ Karl Barth, *Pray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18.

²⁸ John Stott, *Between Two Worlds* (Grand Rapids: Eerdmans, 1982), 137.

불균형이 나타난다. 기도, 찬양, 성찬이 설교의 부수적 요소로 전락하는 경향은 예배의 전인적 성격을 약화시킨다. 균형 잡힌 예배는 말씀의 전례(Liturgy of the Word)와 성찬의 전례(Liturgy of the Table)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예배의 구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3) 찬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찬송은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다. 본회퍼는 공동체 찬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²⁹ "함께 부르는 찬송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즉 찬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신학적 행위이다.

찬송의 공동체성은 역사적으로도 확인된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 도구로 사용한 회중 찬송(Congregational hymn)은, 라틴어로만 진행되던 미사에서 소외되었던 평신도들을 예배의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시켰다. 마르틴 루터의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는 단순한 음악 작품이 아니라 신학적 고백이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예배 도구였다. 이 전통에서 볼 때, 현대 예배의 찬양 역시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신학적 고백과 공동체적 결속의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4) 성찬

성찬은 공동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예배 요소이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성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³⁰ "성찬은 교회가 하나 되는 사건이며, 하나님 나라를

²⁹ Bonhoeffer, *Life Together*, 59.

³⁰ Schmemann, *Introduction to Liturgical Theology*, 15.

미리 경험하는 잔치이다." 이 관점은 성찬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적 연합과 종말론적 소망을 동시에 포함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 장에서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교회를 강하게 책망한다. 그 이유는 성찬이 개인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연합과 관련된 거룩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주의 몸을 분변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고전 11:29)이라는 말씀은 성찬 참여에 공동체적 책임과 신학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대 한국 교회에서 성찬의 빈도를 늘리고 그 의미를 깊이 교육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5) 세례

세례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제임스 F. 화이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³¹ "세례는 개인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공적 행위이다." 따라서 세례는 공동체 없는 개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배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는 모두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어느 하나도 개인의 사적 종교 행위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이 요소들의 통합적 실천이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한다. 현대 한국 교회가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소홀히 할 때 예배의 균형이 깨진다.

³¹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145.

3.3 종교개혁을 통한 예배 공동체성의 역사적 회복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리 개혁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 운동이었다. 마르틴 루터는 예배의 중심을 성직자에서 회중으로 이동시키며 공동체성을 회복하였다.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³²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이 "만인제사장" 사상은 예배를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참여 행위로 전환시켰다.

마르틴 루터의 예배 개혁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는 라틴어 미사를 독일어 예배로 번역하여 회중이 예배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회중 찬송을 도입하여 예배에서 회중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수세기 동안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예배 참여권을 온 회중에게 되돌려 준 이 변화는, 오늘날 “회중 참여 예배”의 신학적 기초가 된다.

또한 존 칼빈은 예배의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회중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³³ "예배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거룩한 대화이다." 이러한 이해는 예배가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종교개혁 이후 경건주의 운동은 공동체적 신앙을 더욱 심화시켰다. 필립 슈페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³⁴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나눔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 이는 오늘날 소그룹 사역과 예배 공동체성 회복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 역시 예배 공동체성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청교도들은

³² Martin Luther, *Address to the Christian Nobility* (1520).

³³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10.

³⁴ Philipp Jakob Spener, *Pia Desideria* (1675), 87.

예배의 순수성과 회중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성경 중심의 설교와 회중 찬양을 예배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들이 강조한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sola scriptura)” 과 “만인 제사장(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은 오늘날 개신교 예배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20 세기 에큐메니칼 운동과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또 다른 차원의 예배 갱신을 촉발하였다. 공의회는 “능동적 참여(participatio actuosa)” 를 예배 개혁의 핵심 원리로 제시하며, 성도들이 예배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원리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막론하고 현대 예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학적 지표가 되었다.

더 나아가, 존 웨슬리는 공동체적 성화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³⁵ "성화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흐름은 예배 공동체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신앙 성장의 필수적 환경임을 보여준다. 또한 초대교회의 경건한 예배 공동체가 로마 황제를 감동시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듯이, 오늘날도 경건한 예배 공동체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종교개혁의 예배 회복 운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개혁자들의 예배 신학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마르틴 루터, 칼빈, 츠빙글리는 모두 로마 가톨릭 미사의 개혁을 추구했지만, 그 방향과 강조점은 서로 달랐다.

마르틴 루터는 '보수적 개혁자' 로서 기존 예전의 좋은 요소들을 보존하면서 복음적 원리에 반하는 부분만 제거하였다. 그는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음악은 신학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와 영예를 받아야 한다” 고 말하였다. 마르틴 루터의 이러한 음악 중시는 독일 교회음악의 풍성한 전통을 낳았으며, 바흐(J.S. Bach)의

³⁵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1766), 45.

교회 칸타타로 절정에 이르렀다.

칼빈은 마르틴 루터보다 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는 예배에서 악기 사용을 금지하고 시편만을 예배 찬양으로 허용하였다. 이 '배타적 시편 찬양(Exclusive Psalmody)'의 전통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일부 개혁교회에서 실천되고 있다. 칼빈의 이러한 엄격한 입장은 예배에서의 인간적 창작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츠빙글리는 가장 급진적이었다.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에서 음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말씀 선포만을 남겼다. 이는 당시 가톨릭 미사에서 음악이 말씀을 압도하는 현상에 대한 극단적 반작용이었다. 츙글리의 이러한 입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예배에서 음악이 말씀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극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세 개혁자의 다양한 접근법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예배 음악에 대한 접근은 극단적 배제(츠빙글리)나 무비판적 수용이 아닌, 신학적 분별 속에서의 적극적 활용(루터)이 가장 균형 잡힌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칼빈의 경고-인간의 창작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현대 예배 음악에 대한 중요한 경종이 된다.

개혁 이후 경건주의(Pietism) 운동에서의 예배 갱신도 주목할 만하다.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Pia Desideria, 1675)'은 제도화된 교회의 형식주의를 비판하며, 소그룹 중심의 말씀 나눔과 기도 모임을 제안하였다. 이 '콜레기아 피에타티스(Collegia Pietatis, 경건 모임)'의 전통은 웨슬리의 반회(Class Meeting)로 이어졌고, 오늘날 소그룹 사역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다. 경건주의의 핵심 메시지-형식적 예배를 넘어 마음의 진실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8 세기 대각성 운동(Great Awakening)도 예배 갱신의 중요한 사례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헛필드의 부흥 운동은 형식화된 예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찰스 웨슬리의 수천 곡에 달하는 찬송가는 예배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시기에 탄생한 찬송가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 등-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 세계 교회에서 불리고 있다. 이는 신학적 깊이와 음악적 아름다움이 결합된 찬송이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을 지님을 증명한다.

제 4 장 현대 한국 개신교 예배 찬양에 대한 비판적 고찰

4.1 한국 교회 CCM 도입 과정과 현황

한국 개신교 예배 음악은 초기 선교사들이 도입한 전통 찬송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찬송가들은 교리적 깊이와 성경적 내용을 담고 있어 예배자들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 세기 후반 이후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유입은 예배 음악의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켰다.³⁶

홍정수는 한국 교회 음악의 변화 과정을 세 단계로 분석한다: 선교사 전래 찬송가 시대(19 세기 말 - 1960 년대), 복음성가 도입 시대(1970-1990 년대), CCM 전성 시대(2000 년대 이후). 각 시대마다 당시의 문화적 필요에 응답하는 새로운 예배 음악이 등장했지만, 신학적 검증의 기준은 점점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예배 음악 산업화의 문제이다. 현대 기독교 음악 시장에서 찬양 앨범은 상업적 상품으로 유통되며, 교회들은 유행하는 찬양을 소비하는 구조 속에 놓여있다. 이 구조 속에서 예배 음악의 선택 기준이 신학적 적합성보다 음악적 트렌드와 예배자의 감성적 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이러한 “예배 음악의 시장화” 는 예배의 상품화라는 더 큰 문제의 일부이다.

제임스 F. 화이트는 예배 음악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³⁷ "예배 음악은 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신학적 진리에 있어야 한다." 즉, 문화적 적응은 필요하지만 신학적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³⁶ 홍정수, 『한국 교회 음악 사상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311.

³⁷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0), 54.

한국 교회의 경우, CCM은 전도와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동시에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에서 "경험"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을 낳았다. 전통 찬송가는 수세기에 걸친 신학적 검증의 산물이다. “만세반석 열리니”는 속죄론의 핵심을, “예수 나를 위하여”는 기도와 의존의 신학을 담고 있다. 성도들이 이 찬송들을 부름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교리를 내면화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많은 현대 CCM은 이러한 교리적 깊이 없이 감성적 호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예배자의 신학적 형성에 빈곤을 초래한다.

로버트 웨버는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³⁸ "현대 예배는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배의 본질적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예배 음악은 문화적 도구이지만, 동시에 신학적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 CCM의 역사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발전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전환점은 1973년 캠퍼스 크루세이드(CCC)를 통해 미국의 복음성가가 소개된 시점이다. 이때 유입된 찬양들은 주로 단순한 코드 진행과 반복적 가사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전통 찬송가와 공존이 유지되었다.

두 번째 전환점은 1988년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된 ‘경배와 찬양’ 운동이다. 이 운동은 영어권 예배 음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도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 교회 자체의 예배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에 ‘예배 인도자(worship leader)’라는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였고, 밴드 중심의 예배 음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³⁸ Robert E. Webber, *Ancient-Future Worship* (Grand Rapids: Baker, 1999), 28.

세 번째 전환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예배 음악의 급속한 확산이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의 플랫폼을 통해 힐송(Hillsong), 베틀 뮤직(Bethel Music), 엘리베이션 워십(Elevation Worship) 등 해외 대형 교회들의 찬양이 실시간으로 유입되면서, 한국 교회의 예배 음악은 급격한 동질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 고유의 예배 음악 정체성은 더욱 약화되었다.

네 번째 전환점은 201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워십 콘서트’ 문화의 확산이다. 대형 공연장에서 수천 명의 관객이 모여 찬양 음악을 즐기는 이 형태는, 예배와 공연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러한 행사가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예배가 엔터테인먼트와 혼동되는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놓친 것은 ‘신학적 성찰의 동반’이다. 예배 음악의 형식은 빠르게 변화했지만, 그 변화에 대한 신학적 평가와 성찰은 항상 뒤처졌다. 새로운 예배 음악이 도입될 때마다 “이 음악이 신학적으로 적합한가?”라는 질문보다 “이 음악이 회중에게 인기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예배의 활력을 가져왔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예배의 신학적 깊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CCM이 한국 교회 예배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도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CCM은 젊은 세대에게 예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예배 참여의 적극성을 증가시키며, 음악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CCM 자체가 아니라, CCM을 수용하는 교회의 신학적 분별력의 부재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CCM의 폐기가 아니라, CCM에 대한 신학적 필터링과 기존 전통과의 균형 잡힌 통합이다.

4.2 감성 중심 예배의 빛과 그림자: 신학적 검증의 부재 문제

현대 CCM 중심 예배는 감성적 몰입을 통해 예배 참여도를 높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 중심 예배는 신학적 약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A.W. 토저는 현대 예배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³⁹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지적은 예배가 점차 "서비스화"되고 있음을 날카롭게 보여준다.

프랭클린 M. 세글러(Franklin M. Segler)는 예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⁴⁰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된다." 즉 감정은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성경 역시 이를 경고한다. 아모스 5장 23-24 절에서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감정적인 찬양을 거부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다. 이는 오늘날 감성 중심 예배에 대한 강력한 신학적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 디트리히 본회퍼는 값싼 은혜(cheap grace)의 개념을 통해 감성적 신앙을 경고한다:⁴¹

"값싼 은혜는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이다." 감성 중심 예배가 이러한 "값싼 은혜"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예배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가사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이사야 29장 13절의 경고 -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 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³⁹ 최현구, 「예배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3-4; A.W. 토저, 「지식의 추구」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6), 88.

⁴⁰ Franklin M. Segler, *Christian Worship* (Nashville: Broadman Press, 1984), 35.

⁴¹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Macmillan, 1959), 47.

유효한 예배의 거울이다.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손을 드는 외적 반응이 반드시 진정한 예배의 증거가 아닌 것처럼, 외적 표현이 아닌 내면의 진실한 헌신이 예배의 핵심이다. 일부 CCM 가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개인적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반쪽짜리 복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피상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을 포함해야 한다.

현대 예배 찬양 가사를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속성-거룩하심, 전능하심, 공의-에 관한 찬양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개인적 축복에 관한 찬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예배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선 피조물의 경외감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편향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균형 잡힌 예배는 경외(awe)와 친밀함(intimacy), 두 차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감성 중심 예배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찬양 50 곡의 가사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랑’ 과 ‘은혜’ 에 관한 언급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 ‘ 거룩’ , ‘공의’ , ‘ 심판’ 에 관한 언급은 10% 미만이다. 둘째, 예배자의 감정과 경험을 묘사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행위와 성품을 선포하는 표현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셋째, 공동체적 고백(“우리”)보다 개인적 고백(“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편향은 성도들의 하나님 이해를 왜곡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시다. 가까이 오시면서 동시에 초월적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의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예배는, 결국 '반쪽짜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위험에 빠진다.

감성 중심 예배의 또 다른 문제는 '예배 중독(worship addiction)' 현상이다. 일부 예배자들은 예배에서의 감정적 고양 자체를 추구하게 되며, 이러한 감정적 경험이 없으면 예배가 실패했다고 느낀다. 이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자신의 감정적 만족을 얻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C.S. 루이스는 이를 “기도(또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아닌 기도(또는 예배) 자체를 즐기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음악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음악적 요소들이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다. 반복적인 코드 진행, 점진적인 다이내믹 상승, 지연된 해결(delayed resolution) 등의 기법은 청자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현대 CCM은 이러한 음악적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반응이 성령의 역사와 무비판적으로 동일시될 때 발생한다. 음악이 유발하는 감정적 고양과 성령의 임재를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존 웨슬리의 네 가지 기준(Wesleyan Quadrilateral) - 성경, 전통, 이성, 경험 - 은 예배 음악 평가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예배 음악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해야 하고(성경), 교회의 역사적 전통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며(전통), 신학적으로 논리적이어야 하고(이성), 예배자의 진정한 신앙 경험을 표현해야 한다(경험). 이 네 기준이 균형 있게 적용될 때 예배 음악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다.

4.3 예배의 본질 변질: 세속적 요소의 혼합 현상 분석

현대 예배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세속화(secularization)이다. 이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 자체가 변질되는 현상이다. 네이션 미첼(Nathan D. Mitchell)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⁴² "예배가 소비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 이러한 "예배의 상품화"는 현대 소비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홍정수는 한국 교회 음악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⁴³ "오늘날 교회 음악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미디어 이론은 현대 예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⁴⁴ "매체가 메시지이다(The medium is the message)."

이 관점에서 볼 때, 예배 형식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나치게 공연화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관객 중심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레너드 스윗 역시 현대 문화의 특징을 “경험 중심, 참여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교회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 예배의 세속화는 예배 음악의 리더십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으로 교회 음악 지도자(cantor, 오르가니스트, 성가대 지휘자)는 신학적 훈련을 받은 예배 사역자였다. 그러나 현대 교회의 위십 리더는 종종 음악적 재능을 기준으로 선발되며, 신학적 자격보다 무대 퍼포먼스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찬양 인도 사역의 성격을 하나님을 향한 봉사에서 회중을 향한 공연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예배의 세속화는 예배 공간의 설계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 교회 건축이 경외심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반면, 현대 대형 교회들은 종종

⁴² 네이션 D 미첼, 『예배, 신비를 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바이북스, 2014), 363.

⁴³ 홍정수, 『한국 교회 음악 사상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311.

⁴⁴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New York: McGraw-Hill, 1964), 7.

공연장이나 영화관을 연상시키는 구조를 채택한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 역시 예배의 신학적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은 침묵 없이 말하며, 예배자들이 공간에 들어설 때 이미 예배의 분위기와 목적이 전달된다.

결국 현대 예배는 공연(performance)과 참여(participation)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균형을 잃을 경우 예배는 “관람”으로 전락하게 된다. 예배 인도자는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공연자가 아니라,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전적 리더이어야 한다.

예배의 세속화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 세부 영역을 살펴보겠다. 첫째, '예배의 소비화(consumerization of worship)'이다. 현대 소비 문화의 영향 아래, 예배자들은 점점 '예배 소비자'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 교회의 예배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가?”, “설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찬양이 나의 취향에 맞는가?” 등의 질문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서비스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소비자 태도는 예배의 근본적 방향—하나님을 향한 것—을 역전시킨다.

둘째, '예배의 연예화(entertainment worship)'이다. 일부 대형 교회에서 나타나는 예배의 공연화 현상은, 예배 인도자가 공연자(performer)로, 회중이 관객(audience)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무대 조명, 연기, 특수효과 등 공연 문화의 요소들이 예배에 도입되면서, 예배와 공연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물론 예배에서의 예술적 표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회중에게 보여주는 것인지를 방향성이 중요하다.

셋째, '예배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of worship)'이다. 현대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예배가 점점 개인적 경험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찬양, 개인의 감정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예배

태도, 이어폰을 끼고 개인적으로 찬양을 듣는 관행 등은 예배의 공동체적 차원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넷째, '예배의 치료화(therapeutic worship)'이다. 예배가 점점 심리적 치유와 위로의 장소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예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예배의 목적이 인간의 심리적 안녕에만 집중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 죄에 대한 회개, 세상을 향한 파송이라는 예배의 다른 중요한 차원들이 약화된다.

다섯째, '예배의 기술 의존화(technology-dependent worship)'이다. 프로젝터, 음향 시스템, 조명 장비 등 기술적 도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이러한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기술은 예배를 돕는 도구이지,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가 어떤 기술적 장비도 없이 강력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속화 현상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반(反)문화적 자세가 아니라, 복음적 분별(evangelical discernment)이어야 한다. 문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H.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서 교회는 “문화의 변혁자(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배의 세속화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빛 아래 변혁시키는 것이다.

4.4 예배 회복을 위한 신학적 기준

현대 예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학적 기준이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 기준이 핵심적이다. 첫째, 삼위일체적 구조(Trinitarian structure)이다.

건강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반영한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많은 현대 찬양이 삼위 중 특정 위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러한 삼위일체적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다.

둘째, 전인적 참여(holistic participation)이다. 예배는 마음(심리), 뜻(의지), 힘(신체)을 다하는 전인적 행위이어야 한다. 현대 예배가 감정(마음)에만 집중하는 것은 전인적 참여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서기(찬양), 앉기(말씀 경청), 무릎 꿇기(기도), 서로 인사하기(교제) 등 다양한 신체적 행위를 통해 전인적 예배를 실천하였다.

셋째, 선교적 지향(missional orientation)이다. 예배는 교회 내부를 위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한 파송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사야 6장의 패턴—하나님의 임재 경험 → 정결 →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파송—은 예배가 본질적으로 선교적 사건임을 보여준다.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한 사랑과 봉사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넷째, 종말론적 기대(eschatological expectation)이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사건이다. 성찬에서 “주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고전 11:26) 것처럼, 예배에는 현재의 경험을 넘어 미래를 향한 소망의 차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천상 예배는 이 종말론적 예배의 모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학적 기준들을 실제 예배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표(checklist)를 제안한다. 매 주 예배 후, 예배 인도팀이 다음 질문들을 통해 예배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말씀이 예배의 핵심에 있었는가?”, “공동체적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균형 있게 고백되었는가?”, “진인적 참여가 가능했는가?”, “세상을 향한 파송의 차원이 있었는가?” 이러한 정기적 자기 점검은 예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 도구가 될 것이다.

(1) 하나님 중심성

예배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중심성이다. 존 파이프(John Pip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⁴⁵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즉 예배는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말씀 중심성

종교개혁 전통은 예배의 중심을 말씀에 두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⁴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공허하다." 말씀은 예배의 기준이며, 모든 예배 요소는 말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말씀 중심 예배의 실천적 방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찬양 가사의 성경적 근거를 확인하는 가사 검토 체계 마련, 설교 본문과 찬양의 주제적 연결, 예배 중 성경 봉독의 확대, 시편 교독의 정기화 등이다. 이러한 실천들은 예배가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말씀으로 형성되도록 돕는다.

(3) 공동체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배는 공동체적 행위이다. 개인적 감정에만 집중된 예배는 공동체성을 약화시킨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⁴⁷ "예배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교회의 삶이다."

⁴⁵ John Piper, *Desiring God* (Portland: Multnomah, 2003), 15.

⁴⁶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6.

⁴⁷ Schmemmann, *For the Life of the World*, 33.

제 5 장 신앙 전통의 갱신을 위한 비교 사례 연구

5.1 떼제(Taizé) 공동체: 반복적 찬양과 공동기도의 형성

프랑스 떼제 공동체는 현대 예배 회복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1940년 로제 수사(Brother Roger)에 의해 설립된 이 공동체는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공동체적 침묵을 중심으로 한 예배 형태를 발전시켰다. 떼제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적 찬양"이다. 짧은 성경 구절을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이 방식은 단순한 음악적 형태를 넘어 영적 묵상의 도구로 기능한다. 떼제 공동체의 예배 형식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반복적 찬양(Ostinato), 성경 낭독, 그리고 침묵의 기도. 이 세 요소는 서로를 보완하며 깊은 예배 경험을 만들어낸다. 반복적 찬양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성경 낭독은 그 집중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공간을 만든다.

떼제 찬양의 신학적 특징은 주로 시편과 신약 본문에 기초하며, 짧은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한다. “Bless the Lord, my soul” (시 103 편), “Laudate omnes gentes” (만국이여 주를 찬양하라, 시 117 편), “Ubi caritas et amor”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와 같은 찬양들은 간결하지만 신학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사의 신학적 내용이 음악의 감성적 효과와 결합될 때 예배 음악이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된 떼제 찬양들은 세계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한다.

로제 수사는 떼제 예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⁴⁸ "짧고 단순한 노래를 반복할 때, 그 말씀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이는 현대 CCM이 외적 감정 자극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내면의 침잠과 영적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떼제 예배는 "침묵"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침묵의 영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⁴⁹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깊은 언어이다." 떼제 공동체는 이러한 침묵을 통해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 하나됨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그레고리안 찬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화성을 수용한 떼제 음악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떼제 공동체가 매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현상으로, 현대 젊은이들이 화려한 공연 중심의 예배보다 침묵과 단순함, 공동체적 나눔이 있는 예배에 더 깊이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떼제 예배는 문화와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칼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는 현대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교단 분열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어느 특정 교단이나 예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떼제 공동체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다.

떼제 공동체의 예배가 현대 한국 교회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적용 가능성이 발견된다. 첫째, '침묵의 회복'이다. 떼제 예배에서 약 8-10 분간 지속되는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의도적인 공간이다. 현대 한국 교회 예배에서 침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찬양이 끝나면 곧바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끝나면 즉시 설교가

⁴⁸ Brother Roger, *Taizé: Sources of Faith* (Chicago: GIA Publications, 2000), 24.

⁴⁹ Henri J. M. Nouwen, *The Way of the Heart*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1), 74.

시작된다. 이러한 빈틈 없는 프로그램 구조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머무를 기회를 박탈한다. 열왕기상 19 장 12 절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세미한 소리”는 폭풍과 지진과 불 이후의 침묵 속에서 임했다. 현대 예배에도 이러한 침묵의 공간이 회복되어야 한다.

둘째, '단순성의 힘'이다. 폐제의 반복적 찬양은 형식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영적 체험이 가능하다. 이는 복잡하고 화려한 것이 반드시 깊은 것은 아니라는 역설을 보여준다. 현대 예배가 점점 더 복잡한 음향 장비, 화려한 조명, 정교한 편곡에 의존하는 경향과 대비되는 이 원리는, 예배의 본질이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셋째, '에큐메니칼 정신'이다. 폐제 공동체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 다양한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에큐메니칼 공동체이다. 한국 개신교가 수많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단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세대 통합'이다. 폐제 공동체에는 10 대부터 80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함께 예배한다.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침묵 속에 머무르며,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경험은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문다. 한국 교회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는 관행은, 교회의 세대 통합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폐제 모델을 한국 교회에 도입할 때의 실천적 방법으로는 다음을 제안한다. 주중 기도회에 폐제 스타일의 묵상 기도 시간을 도입하거나, 사순절이나 대강절에 폐제 찬양을 활용한 특별 기도 모임을 개최하거나, 소그룹 모임에서 폐제 찬양과 침묵 기도를 실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점진적 도입을 통해 한국 교회 예배에 묵상과 침묵의 차원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5.2 성공회(Anglican Church): 예전 중심 예배와 시편 찬탕

성공회 예전은 전통과 질서, 그리고 공동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배 모델이다. 제임스 F. 화이트는 성공회 예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⁵⁰ "성공회 예전은 신학과 예배, 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장 균형 잡힌 형태이다." 성공회 예배의 핵심은 "공동기도(common prayer)"이다. 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조를 의미한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전통 예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⁵¹ "예전은 교회의 기억이며, 신앙의 살아있는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신앙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성공회의 『공동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는 1549년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에 의해 편찬된 이래 수백 년간 영어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생활을 형성해 왔다. 이 기도서의 핵심 원리는 “lex orandi, lex credendi(기도의 법이 믿음의 법이다)”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형성한다는 이 원칙은, 예배 형식이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임을 강조한다. 성공회 예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교회력(liturgical calendar)의 활용이다.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을 중심으로 한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한 해 동안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예배적 틀을 제공한다.

성공회 예배에서 시편 찬탕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시편을 음악적으로 노래하는 찬탕 전통은 단순히 음악적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온몸으로 체화하는 예배 행위이다. 성공회 예배의 구조는 “말씀의 예전(Liturgy of the Word)”과 “성찬의

⁵⁰ James F. White, *Christian Worship in Transition* (Nashville: Abingdon, 1976), 112.

⁵¹ Schmemmann, *Introduction to Liturgical Theology*, 14.

예전(Liturgy of the Table)”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구조는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에 뿌리를 두며, 유스티누스 마르티르(Justin Martyr)의 2세기 기록에서도 이 구조가 확인된다. 말씀과 성찬의 균형은 예배가 선포(kerygma)와 나눔(koinonia)을 동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신약성경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구현한다.

성공회 예배의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한국 교회 예배가 배울 수 있는 여러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성공회의 주일 성찬 예배(Holy Eucharist)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른다: 입당 찬송 → 개회 인사 → 참회의 기도(Confession) → 사죄 선언(Absolution) → 영광송(Gloria) → 본기도(Collect) → 성경 봉독(구약, 시편, 서신, 복음서) → 설교 → 니케아 신경 → 중보기도(Intercessions) → 평화의 인사 → 봉헌 → 성찬 기도(Eucharistic Prayer) → 주기도문 → 떡 떼 → 영성체 → 파송. 이 구조는 초대교회 예배의 기본 형식을 충실히 보존하고 있으며,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예배 서사(liturgical narrative)를 형성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예배가 참회와 용서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예배의 올바른 자세를 형성한다.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첫 반응은 경외와 회개이어야 한다. 현대 한국 교회 예배에서 이 참회의 시간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된 것은 예배의 중요한 차원의 상실을 의미한다.

성공회의 성경 봉독 체계(Revised Common Lectionary)는 3년 주기로 구약, 시편, 서신, 복음서를 체계적으로 봉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체계를 따르면, 3년 동안 성경의 핵심 본문을 거의 모두 다루게 된다. 이는 개별 목회자의 선호에 따라 특정 본문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한국 교회의 관행과 대비된다. 성경

통독표(lectionary)의 도입은 성도들이 성경 전체의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방법이다.

시편 찬팅(Anglican Chant)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면, 이는 시편의 각 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간단한 선율(chant)에 맞추어 노래하는 형식이다. 이 선율은 일반적으로 7-8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매우 단순하며, 음악적 훈련이 없는 회중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시편 찬팅의 가치는 시편의 텍스트를 단순히 읽는 것보다 더 깊이 내면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다. 멜로디에 얽힌 말씀은 기억에 더 오래 남으며, 공동체가 함께 동일한 선율로 시편을 노래하는 경험은 강한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한다.

한국 교회에 시편 찬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음운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시편 찬팅 선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음절 기반 언어이므로, 영어권 앵글리칸 찬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전통 음악의 선법(예: 평조, 계면조)을 활용한 시편 찬팅의 가능성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과제이다. 한국 고유의 음악적 전통 위에 시편을 얹는 작업은, 서구 예배 형식의 무비판적 수입이 아닌, 한국 교회 고유의 예배 문화를 창출하는 길이 될 수 있다.

5.3 RSCM(영국 왕립교회음악협회): 음악과 신학의 통합

RSCM(Royal School of Church Music)은 교회 음악과 신학의 통합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로버트 미첼(Robert H. Mitchell)은 교회 음악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⁵² "교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신학의 표현이다."

이 관점은 현대 CCM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RSCM은

⁵² Robert H. Mitchell, *Ministry and Music* (San Jose: Resource Publications, 1991), 33.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음악은 공동체를 세운다. 음악은 신학을 전달한다. 이는 현대 한국 교회 음악이 회복해야 할 핵심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RSCM은 찬양 인도자를 단순한 “음악가”가 아닌 “신학적 리더”로 양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찬양 인도자는 단순히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고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책임을 지닌 사람이다.

Robert H. Mitchell은 자신의 저서 『목회와 음악』⁵³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모든 목회자들은 교회음악에 참여하여야 한다. 목회자가 교회의 음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대부분의 집회에서 음악이 20%~25%를 차지할 것이다."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2025년 RSCM 여름 캠프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교회음악을 훈련하였다. 훈련의 과정은 단순히 음악적 기술의 향상만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해, 공동체적 나눔,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전인적인 과정이었다.

한국 교회의 교회음악 교육 현황과 비교할 때, RSCM의 접근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찬양팀은 음악적 기술 향상에 집중하는 반면, 예배신학이나 예배 인도의 영적 의미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다. RSCM의 모델을 적용하여 찬양팀 훈련 시 음악 기술뿐 아니라 예배신학, 성경 이해, 예배 인도자의 영적 책임을 함께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 신학교들이 교회음악학과와 신학과 사이의 교류를 강화하고, 목회자가 예배 음악을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⁵³ Robert H. Mitchell, 『목회와 음악』 홍정표 역 (서울: 에덴문화사, 1992), 11.

것이 중요하다.

RSCM의 교육 방법론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교회 교회음악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원리가 발견된다.

RSCM의 교육 과정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음악적 기술(Musical Skills), 예배 이해(Liturgical Understanding),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 리더십 개발(Leadership Development). 이 네 영역이 통합적으로 교육되는 것이 RSCM 접근법의 핵심이다.

음악적 기술 영역에서는 성가대 노래 기법, 오르간/피아노 반주법, 합창 지휘법, 음악 이론 등을 다룬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 숙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술이 예배의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교육한다. 예를 들어, 오르간 반주법 수업에서는 단순히 연주 기법만이 아니라, 예배의 각 순서에 적합한 반주 스타일, 회중 찬양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반주 방법 등을 함께 가르친다.

예배 이해 영역에서는 교회력의 구조와 의미, 각 예배 순서의 신학적 배경, 찬송가와 시편의 선정 원리, 예배 기획의 방법론 등을 다룬다. 이 교육을 통해 음악 사역자들은 단순히 “어떤 곡을 부를 것인가”를 넘어 “왜 이 곡을 이 순서에 부르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영적 형성 영역에서는 개인 경건 훈련, 공동체적 기도 실천, 성경 묵상 방법, 음악 사역의 영적 의미에 대한 성찰 등을 포함한다. RSCM은 교회 음악 사역이 단순한 기술적 봉사가 아니라 영적 사역(spiritual ministry)임을 강조한다. 음악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질 때, 그의 음악도 예배에서 더 깊은 영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리더십 개발 영역에서는 합창단 운영 방법, 자원봉사자 관리, 교회 내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방법 등 실제적인 리더십 역량을 교육한다. 이는 교회 음악 사역이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팀 사역이며,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인식에 기반한다.

한국 교회에 RSCM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각 교단의 신학교에 '교회음악과 예배신학 통합 과정'을 개설하여 미래의 교회 음악 사역자들이 음악과 신학을 통합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게 한다. 둘째, 현직 찬양팀 리더들을 위한 단기 집중 세미나를 개발하여, 음악적 기술뿐 아니라 예배신학과 영적 리더십을 교육한다. 셋째, 교회 음악 사역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학습과 자원 공유의 플랫폼을 마련한다. 넷째, RSCM과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 교회 음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한국 교회 고유의 예배 음악 전통을 세계 교회와 나눈다.

5.4 비교 분석: 세 가지 모델의 통합적 의미

위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하나님 중심성**: 세 모델 모두 예배의 중심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둔다. 이는 현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회복 과제이다.

(2) **공동체성**: 떼제는 공동 침묵, 성공회는 공동기도, RSCM은 공동 찬양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3) **전통과 갱신의 균형**: 세 모델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적용을 시도한다. 이는 "전통 vs 현대"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이다.

세 모델의 또 다른 공통점은 침묵과 기다림의 영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떼제의 침묵 기도, 성공회의 경건한 침묵의 순간들, RSCM의 음악적 준비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조용해지는 훈련을 포함한다. 현대 예배에서 침묵은 종종 어색한 공백으로 여겨지지만,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 (왕상 19:12)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수적 공간이다.

또한 이 세 모델은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세대 통합적 예배를 지향한다. 떼제 공동체는 특히 젊은 세대를 환영하며, RSCM의 청소년 합창 프로그램은 어린 나이부터 교회 음악의 신학적 전통을 몸으로 익히게 한다. 이러한 세대 통합적 접근은 한국 교회의 청년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로버트 웨버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⁵⁴ "미래의 예배는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세 모델의 비교 분석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면, 각 모델이 지닌 고유한 강점과 약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떼제 공동체의 가장 큰 강점은 '접근성(accessibility)'이다. 짧고 반복적인 찬양은 음악적 훈련이 없는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다국어 찬양은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게 한다. 그러나 떼제 모델의 약점은 '설교의 부재'이다. 떼제 예배에는 전통적 의미의 설교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개신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선포의 차원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공회 예전의 가장 큰 강점은 '신학적 완결성(theological completeness)'이다. 수백 년에 걸쳐 다듬어진 예전은 예배의 모든 신학적 차원을 포괄하며, 교회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전체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성공회 모델의 약점은 '형식주의의 위험'이다. 풍부한 예전이 오히려 기계적 반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⁵⁴ Webber, *Ancient-Future Worship*, 45.

존재한다.

RSCM의 가장 큰 강점은 '교육적 체계성(educational systematization)'이다. 음악과 신학의 통합 교육은 예배 음악 사역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RSCM 모델의 약점은 '전문가의 의존성'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전문 음악 사역자가 필요하므로, 소규모 교회나 자원이 제한된 교회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 교회를 위한 통합 모델을 설계할 때, 이 세 모델의 강점을 취합하되 약점을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떼제의 접근성과 침묵의 영성, 성공회의 신학적 완결성과 예전적 풍요로움, RSCM의 교육적 체계성과 음악적 탁월함을 한국 교회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통합 모델은 '한국형 예배 갱신 모델(Korean Model of Worship Renewal)'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그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시편과 성경에 기초한 찬양의 회복(떼제 + 성공회에서 차용), (2) 침묵과 묵상의 영성 도입(떼제에서 차용), (3) 교회력에 기반한 체계적 예배 기획(성공회에서 차용), (4) 음악과 신학의 통합 교육(RSCM에서 차용), (5) 한국 교회 고유의 영적 전통(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등)의 계승과 갱신이다. 이 다섯 가지 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한국 교회 예배는 보편성과 토착성, 전통과 현대, 형식과 자유를 동시에 아우르는 풍요로운 예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5.5 한국 교회를 위한 적용 가능성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교회에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제공한다.

- 예배의 단순화: 과도한 프로그램 중심 예배에서 벗어나 본질 회복
- 공동체적 참여 확대: 관람형 예배에서 참여형 예배로 전환

- 신학적 기준 회복: 음악과 예배의 신학적 검증 강화
- 전통의 재발견: 시편, 찬송가, 예전 회복

이러한 적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예배에서 시편 교독과 공동 기도를 확대하고, 찬양팀에 예배신학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소그룹 예배 교육, 성찬 빈도 증가, 세대 통합 예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회 전체의 예배 문화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재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 그리고 기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레너드 스위트는 현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⁵⁵ "미래 교회는 참여적이며, 경험적이며, 공동체적인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 교회에 대한 적용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교회의 규모와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대형 교회(출석 500 명 이상)의 경우,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종합적인 예배 갱신을 시도할 수 있다. 전문 예배 기획팀의 구성, 음악 사역자 대상 신학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교회력에 따른 체계적 예배 기획, 성찬 빈도의 증가, 세대 통합 예배의 정기적 시행 등이 가능하다. 대형 교회의 예배 갱신은 한국 교회 전체에 모범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

중형 교회(출석 100-500 명)의 경우, 제한된 자원 안에서 핵심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먼저 시편 교독과 공동 기도를 예배에 도입하고, 찬양팀을 위한 기본적인 예배신학 교육을 시행하며, 분기 1 회 이상의 성찬을

⁵⁵ Leonard Sweet, *Aqua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99), 211.

실시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중형 교회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예배 갱신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점 규모라는 장점이 있다.

소형 교회(출석 100명 미만)의 경우, 오히려 소규모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성도가 서로를 알고 있는 친밀한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적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가정교회 형태의 친밀한 예배,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교독과 기도,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성찬 등은 소형 교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소형 교회의 예배 갱신은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모델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예배 갱신은 해외 한인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디아스포라 상황에서의 한인 교회 예배는 신앙적 기능뿐 아니라 문화적·정체성 형성 기능도 수행한다. 해외 한인 교회가 한국어 예배의 풍요로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현지 문화와의 접점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해외에서 자라는 차세대에게 한국 교회의 예배 전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시급한 선교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적용을 위한 실행 타임라인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1-6개월): 목회자와 예배 인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세미나와 독서 모임. 2 단계(6-12개월): 시편 교독, 공동 기도문 도입 등 비교적 쉬운 변화부터 시작. 3 단계(1-2년): 성찬 빈도 증가, 찬양팀 신학 교육, 예배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변화. 4 단계(2-3년): 교회력 도입, 세대 통합 예배 정착, 시편 찬양 창작 등 심화적 변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 것이며, 성도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교육이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6 장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와 공동체성 회복

6.1 팬데믹이 남긴 예배적 시사점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의 예배를 멈추게 했다. 팬데믹 위기 속에 교회 후퇴 이유는 교회들이 예배의 기초인 모이는 공동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배자가 시청자로 전락할 위험이 동시에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본질을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예배 공간이 없어도 신앙 공동체는 지속됨을 경험하였다. 동시에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예배의 특정 요소들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성찰이 이루어졌다. 이 경험은 예배의 본질과 형식에 대한 더 성숙한 신학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동시에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예배는 반드시 특정 건물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형태로 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예배의 본질과 형식을 구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접속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느꼈던 공허함은, 예배가 단순한 정보 소비가 아니라 공동체적 만남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였다.⁵⁶

실제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신앙이 약화되었다는 응답이 30~35%에

⁵⁶ 최현구, 「예배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1-4.

달했으며,⁵⁷ 기존에 신앙이 약했던 성도들은 더욱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통계는 예배 공동체성이 신앙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가 개인의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임이, 그것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더욱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공동 예배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히 10:25)-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신앙 생존을 위한 실천적 지혜임을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교회 예배에 미친 영향을 더 면밀히 분석하면,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다. 첫째, 팬데믹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성전이 문을 닫았을 때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성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 경험은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팬데믹은 예배의 각 요소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였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했지만, 함께 찬양을 부르고, 성찬을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극히 어려웠다. 이 경험을 통해 예배의 각 요소가 지닌 공동체적·신체적·성례적 차원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었다.

셋째, 팬데믹 기간 중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예배 접근성에 미친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노년층과 저소득층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교회가 기술적

⁵⁷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19 종식 후, '예전처럼 주일 현장 예배드리겠다' 78%," 「넘버즈」 108 (2021. 8. 20), 4-9.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경험이었다.

넷째, 팬데믹은 목회자들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했던 많은 목회자들은 기술적 역량의 부족, 설교 방식의 변화, 성도 심방의 어려움 등 다중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목회자들은 번아웃(burnout)에 빠졌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되는 목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예배 회복은 성도들의 회복인 동시에 목회자들의 회복이기도 하다.

다섯째, 흥미로운 것은 팬데믹이 일부 교회에서는 오히려 예배 혁신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소그룹 중심의 가정 예배, 야외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등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실험들 중 일부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위기가 항상 위험만이 아니라 기회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배의 형식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창의적으로 변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6.2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과 한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계속된 질문은 "과연 온라인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가?"였다. Teresa Berger 는 예배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말하며,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로 바람처럼 자유롭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 나타난다"고 말한다.⁵⁸

디지털 기술을 통한 온라인 예배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을 가능케 한다. 이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가상

⁵⁸ Teresa Berger,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안선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115.

세계가 연결된 예배의 자리에도 계신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의 공동체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에서 성례전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성찬과 세례는 그 본질상 공동체가 함께 모여 행하는 예식이다. 화면을 통한 성찬 참여나 세례 진행은 이 성례전의 공동체적 성격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물론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성례전의 정상적인 형태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온라인 예배가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 중 하나이다.

이는 신체적 현존(physical presence)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은 영혼뿐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이며, 예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전인적 참여를 요구한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나누는 평화의 인사, 함께 무릎 꿇는 기도, 공동으로 나누는 성찬의 떡과 잔 - 이러한 신체적 행위들은 온라인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예배의 핵심 요소들이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더 깊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임재(presence)'에 관한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divine presence)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omnipresent) 분이므로, 어떤 장소에서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이 점에서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Teresa Berger가 지적했듯이, 성령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므로, 디지털 공간도 성령의 역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성도 간의 상호 임재(mutual presence)의 문제는 다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너희가 모인 때에 내 영이 함께 하여”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물리적 모임에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 예수님의 약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역시 물리적 모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왔다. 온라인 모임이 이 '모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신학적으로 여전히 논쟁 중이다.

셋째, 성례전적 임재(sacramental presence)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어떻게 이해하든(실체변화, 공재, 영적 임재, 기념 등), 떡과 포도주라는 물리적 요소의 나눔은 성찬의 본질적 구성 요소이다. 온라인으로 성찬을 진행할 때, 각 가정에서 준비한 떡과 포도주가 공동체적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가는 심각한 신학적 질문이다.

넷째, 신체적 임재(bodily presence)의 신학적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기독교 신학은 근본적으로 성육신(incarnation)의 종교이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물질적·신체적 차원이 신앙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예배에서의 신체적 행위들-함께 서고, 앉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성육신 신학의 예배적 표현이다.

이러한 신학적 분석을 종합하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적 가치'를 지니지만, 물리적 공동체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온라인 예배의 적절한 위치는 현장 예배의 '대체(replacement)'가 아니라 '보완(supplement)'과 '확장(extension)'이다. 건강이나 거리 등의 이유로 현장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예배를 소개하는 선교적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6.3 변경예배의 교훈과 미래 온라인 예배의 방향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미국 교회의 변경예배(Frontier Worship)는 예배의 본질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의 변화를 통해 엄청난 부흥을 이룩했던 시기의 예배를 말한다.⁵⁹ 이 정신은 오늘날 온라인 예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온라인 예배는 가나안 성도들과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선교의 장이 된다.

온라인 예배의 미래를 전망할 때, 기술을 예배의 주인이 아닌 도구로 위치시키는 신학적 분별이 필요하다. 마셜 맥루한의 “매체가 메시지이다” 라는 통찰을 적용하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매체 자체가 예배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온라인 예배는 비신자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선교적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장 예배 공동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에서 나타난 “하이브리드 예배(hybrid worship)” -온라인과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는 신중한 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하이브리드 예배는 현장 예배자와 온라인 예배자 사이에 본질적인 경험의 차이를 야기하며, 이는 예배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미래 예배의 방향을 전망할 때, 기술 발전이 가져올 다양한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인공지능(AI) 기술의 예배 적용 가능성이다. AI 기반의 찬양 추천 시스템, 설교 본문에 맞는 찬양 자동 매칭, 예배 참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배 개선 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AI가 예배 기획의 핵심 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예배의 영적 차원을 기술적 효율성으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 기술은 인간의 영적 분별을 보조하는 도구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⁵⁹ 제임스 F 화이트, 『개신교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296.

둘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의 예배 활용 가능성이다. VR 기술을 통해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는 성도들이 가상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경험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예배의 신체적·물질적 차원을 대체할 수 있는가는 깊은 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성육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에서, 물질적·신체적 차원을 배제한 예배가 충분한 예배인가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셋째, 소셜 미디어의 예배적 활용이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짧은 찬양 영상이나 말씀 묵상 콘텐츠가 공유되는 현상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영적 교류를 보여준다. 이러한 콘텐츠가 개인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공동체적 예배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변경예배의 역사적 교훈은 예배의 핵심 원리를 요약해준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되, 그 표현의 형식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의 변경지역에서 정제된 동부의 예배 형식을 유지할 수 없었을 때, 교회는 야외 부흥회, 캠프 미팅 등의 새로운 예배 형태를 창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배의 형식은 급진적으로 변했지만, 복음의 선포, 회개와 신앙 고백, 공동체적 교제라는 예배의 핵심 요소는 유지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원리를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예배의 형식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예배의 본질—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의 선포, 공동체적 교제, 성례전의 나눔, 세상을 향한 파송—은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유지되어야 한다. 매체가 변해도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새로운 매체를 통해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6.4 광주양림교회 사례: 기술과 본질의 조화

광주양림교회는 온라인 사역을 통해 공동체성을 유지한 실천적 사례를 보여주었다.⁶⁰ 온라인 성찬 키트 배부와 실시간 세족식, 성도 심방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가상 세계에서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엔데믹 이후 자연스러운 현장 예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 원리는 “형식의 창의성, 본질의 보존”이다. 기술이 예배의 형식을 바꾸되, 예배의 본질-하나님과의 만남, 공동체적 나눔, 복음의 선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예배를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이 붙들어야 할 기준이다.

광주양림교회의 사례는 기술이 예배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성찬 키트를 각 가정에 배달함으로써 분리된 공간에 있는 성도들이 동일한 시간에 같은 성찬에 참여하는 경험을 가능케 한 것은, 예배의 본질인 공동체적 나눔을 창의적으로 유지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기술을 예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술의 목적론적 활용”이다. 기술이 예배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하나님과의 만남, 공동체의 연합, 복음의 선포-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중심에 두고 온라인 예배의 형식과 방법을 설계할 때, 기술은 예배의 위협이 아니라 자원이 될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후 예전처럼 현장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이 78%를 차지했으며, 가나안 성도들의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은 61%에

⁶⁰ 오대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58-72.

달한다.⁶¹

광주양림교회의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실천적 원리를 더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목적론적 활용’ 원리이다. 광주양림교회는 기술을 예배의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모든 가용한 기술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기술만을 도입하였다. 온라인 성찬 키트 배부는 성찬의 물질적·공동체적 차원을 온라인 환경에서도 최대한 유지하려는 신학적 판단의 결과였다.

둘째, ‘능동적 참여의 설계’ 원리이다. 이 교회는 온라인 예배에서도 성도들이 수동적 시청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실시간 채팅을 통한 기도 요청 공유, 화상 통화를 통한 소그룹 교제, 온라인 헌금과 봉헌의 기회 제공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예배의 참여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이었다.

셋째, ‘일상과의 연결’ 원리이다. 광주양림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주일 한 시간의 생방송으로 제한하지 않고, 주중 일상으로 확장하였다. 매일 아침 짧은 묵상 영상 제공, 주중 기도회의 온라인 진행, 성도 간 온라인 기도 파트너 매칭 등을 통해, 주일 예배가 주중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예배 갱신이 위기 상황에서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역설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기존 관행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강하지만, 위기는 이 관성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도를 촉발한다. 코로나

⁶¹ 목회데이터연구소, '예전처럼 주일 현장 예배드리겠다' 78%, "「넘버즈」 108 (2021. 8. 20), 4-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광주양림교회가 보여준 창의적 대응은, 한국 교회 전체에 “위기 속의 기회”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교회의 경험은 또한 목회 리더십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위기 상황에서 목회자가 보여주는 신학적 분별력, 실행력, 그리고 성도들과의 소통 능력이 예배 갱신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는 신학교 교육에서 목회 실천과 리더십 훈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 7 장 한국 개신교 예배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제안

7.1 시편 중심 예배(Psalm-centered Worship)의 회복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예배 텍스트이며,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다. 존 칼빈은 시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⁶²

"시편은 인간 영혼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는 해부학이다." 이러한 시편의 특성은 현대 예배가 놓치고 있는 "균형 잡힌 신앙 표현"을 회복하게 한다. 현대 한국 교회의 찬양은 주로 기쁨과 위로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으나, 시편은 탄식, 회개, 감사, 찬양 등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⁶³ "시편은 인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신앙의 언어이다."

따라서 시편 중심 예배는 감정의 편향을 극복하고, 전인적 신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천 방안:

- 시편 교독문 확대
- 시편 찬탕(psalm chanting) 도입
- 시편 설교 정기화
- 시편 기반 찬양 창작 활성화

시편 찬탕(psalm chanting)의 도입은 특히 실천적 가치가 크다. 성공회와

⁶² Calvin, *Commentary on Psalms*, Vol. 1, xxxvii.

⁶³ Brueggemann, *The Message of the Psalms*, 19.

가톨릭 전통에서 발전한 시편 찬팅은 시편 텍스트를 단순한 선율에 얽어 회중이 함께 부르는 형식이다. 이 방식은 시편의 내용을 귀로 듣는 동시에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체험하게 한다.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 낡은 형식이지만, 다양한 언어권에서 개발된 시편 찬팅 선율들이 활용 가능하며, 한국 교회 고유의 시편 찬팅 전통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시편 중심 예배 회복의 구체적 실천으로는 예배력(liturgical calendar)과 시편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 사순절에는 탄식 시편을, 부활절에는 찬양 시편을, 추수감사 절기에는 감사 시편을 중심에 두는 절기적 예배 구성은 성도들이 신앙의 리듬을 갖게 하고 교회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애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적 경험을 제공한다.

시편 중심 예배 회복의 구체적 모델을 더 상세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시작에 '부름의 시편(Call to Worship Psalm)'을 도입한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등을 예배의 부름으로 사용함으로써, 예배의 시작이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임을 선언할 수 있다.

둘째, 설교 후 '응답의 시편(Response Psalm)'을 사용한다. 설교 본문의 주제에 맞는 시편을 교독이나 찬팅으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동체적 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용서에 관한 설교 후에는 시편 32편이나 51편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설교 후에는 시편 93편이나 97편을 읽을 수 있다.

셋째, 교회력과 연결된 시편 사용 체계를 수립한다. 대강절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시편(시 25편, 80편, 130편 등)을, 성탄절에는 기쁨과 경배의 시편(시 96편, 98편 등)을, 사순절에는 회개와 탄식의 시편(시 22편, 51편, 130편 등)을,

부활절에는 승리와 감사의 시편(시 118 편, 148-150 편 등)을 중심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체계적 사용은 성도들이 교회력의 리듬 속에서 시편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한다.

넷째, 시편 묵상을 위한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 방법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고대의 성경 묵상 방법은 읽기(lectio), 묵상(meditatio), 기도(oratio), 관조(contemplatio)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소그룹 모임이나 주중 기도회에서 시편을 이 방법으로 묵상하는 훈련은, 시편의 깊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인적·공동체적 기도로 전환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다섯째, 한국어 시편 찬양의 창작을 적극 장려한다. 시편의 텍스트에 한국적 선율을 입히는 작업은 한국 교회 고유의 예배 음악 유산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업이다. 이를 위해 교단 차원에서 시편 찬양 창작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신학교와 음악대학의 협력을 통한 시편 찬양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전통 국악의 선법을 활용한 시편 찬양은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예배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매일의 기도(Daily Office)에 시편을 중심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역사적으로 수도원 공동체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시편을 노래하며 기도하였다. 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성도들이 아침과 저녁에 정해진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회 차원의 시편 기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 신학적 필터링과 예배 교육의 체계화

현대 예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신학적 기준의 부재"이다. A.W. 토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⁶⁴ "하나님에 대한 낮은 생각이 예배의 타락을 가져온다." 즉 예배의 질은 하나님 이해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필터가 필요하다.

- 가사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가
- 하나님 중심적인가 인간 중심적인가
- 공동체적 고백을 포함하는가
- 교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찬양 가사 검토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예배위원회에 신학자 또는 신학적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예배에서 사용되는 찬양 목록을 검토한다. 둘째, 각 찬양의 신학적 근거와 성경적 출처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셋째, 찬양팀과 목회자가 함께 새로운 찬양을 도입하기 전에 가사를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정례화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신학적 필터링은 예배 음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예배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⁶⁵

"미래 교회는 참여하는 신앙인을 요구한다." 즉 예배는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형성(formative)"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예배자 교육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다음을 제안한다: 예배 전 교육(각 순서의 의미 설명), 예배학 소그룹 스터디, 예배위원회의 정기적 신학적 점검, 찬양팀 훈련 시 음악 기술뿐 아니라 신학 교육 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예배자들은 수동적 참석자에서 능동적 예배자로 변화되며, 예배의 각 요소가 지닌 신학적 의미를 알고 참여하게 된다.

⁶⁴ A.W. Tozer, *The Knowledge of the Holy* (New York: Harper, 1961), 9.

⁶⁵ Sweet, *AquaChurch*, 211.

신학적 필터링의 구체적 실행 방법을 더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찬양 가사 신학적 평가 기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기준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성경적 근거-가사의 내용이 성경 본문에 기반하는가? (2) 교리적 정확성-가사가 정통 기독교 교리에 부합하는가? (3) 하나님 중심성-가사의 초점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감정과 경험에 있는가? (4) 공동체성-가사가 개인적 고백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고백을 포함하는가? (5) 균형성-가사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사랑과 공의, 은혜와 거룩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가? (6) 교리적 깊이-가사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신학적 깊이를 담고 있는가?

둘째, 교회 내 '예배위원회(Worship Committee)'의 설치를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찬양팀 리더, 신학적 소양이 있는 장로, 교회음악 전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매 분기마다 다음 분기에 사용할 찬양 목록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위의 신학적 평가 기준표가 활용된다. 이러한 체계적 검토 과정은 신학적으로 부적합한 찬양이 예배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셋째, 예배자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입문 과정(4주)-예배의 의미와 기본 구조, 각 순서의 신학적 의미를 학습한다. 심화 과정(8주)-시편의 신학, 찬송가의 역사, 성례전의 의미, 기도의 다양한 형태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실천 과정(지속)-배운 내용을 실제 예배 참여에 적용하며, 소그룹에서 예배 경험을 나누고 성찰한다.

넷째, 찬양팀 대상 '예배신학 워크숍'의 정기적 개최를 제안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음악적 연습뿐 아니라 다음 내용을 다룬다: 예배 인도의 신학적 의미,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 곡 선정의 신학적 기준, 회중 참여를 극대화하는 인도 방법,

예배 인도자의 영적 준비 등. 이러한 교육을 통해 찬양팀 구성원들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닌, 예배의 신학적 방향을 이해하는 예배 사역자로 성장하게 된다.

다섯째, 주보나 예배 안내를 통한 지속적 교육이 효과적이다. 매주 주보에 해당 주일 예배 순서의 의미, 사용되는 찬양의 신학적 배경, 성경 본문의 맥락 등을 간략히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이러한 작은 교육적 노력이 쌓이면, 성도들의 예배 문해력(liturgical literacy)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7.3 전통과 현대의 통합: 균형 잡힌 예배 모델

현대 한국 교회 예배는 "전통 vs 현대"라는 이분법적 갈등 속에 있다. 그러나 참된 예배 회복은 이 둘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로버트 웨버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⁶⁶ "미래의 예배는 고대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 관점은 전통 회귀도, 무분별한 현대화도 아닌 "통합적 예배"를 요구한다. 통합 예배 모델의 실천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찬송가 + CCM 병행
- 전통 예전 + 자유 예배 요소 결합
- 성례전 회복 + 설교 중심 유지
- 침묵 + 찬양 균형

이러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예배 순서 모델을 제안한다. 입례 찬양으로 현대적 CCM을 사용하되, 고백 기도와 죄 사함의 선포, 성경 봉독, 시편 교독을 통해 전통 예전의 요소를 중심부에 배치한다. 설교 후에는 응답 찬송으로 전통 찬송가나

⁶⁶ Webber, *Ancient-Future Worship*, 45.

시편 찬양을 드리고, 성찬으로 예배를 마무리한다. 이러한 구조는 현대적 감성으로 예배에 입장하여 전통의 풍요로움 안에서 깊어지는 예배 경험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통합은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교회의 보편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찬송가와 CCM의 병행 사용은 어느 한 세대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실천적 방법이다.

전통과 현대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의미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통합은 단순히 전통 찬송가와 CCM을 번갈아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배의 신학적 기초(전통)와 문화적 표현(현대)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통일된 예배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로버트 웨버가 제안한 '고대-미래 예배(Ancient-Future Worship)'의 개념은 이러한 통합을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웨버는 초대교회의 예배 원리(고대)를 현대적 문화 형식(미래) 안에서 재표현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 접근법은 전통주의자들처럼 과거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주의자들처럼 과거와의 단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통합 예배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배의 전체 구조는 초대교회의 4부 구조 - 모임(Gathering), 말씀(Word), 성찬(Table), 파송(Sending) - 을 따르되, 각 부분의 음악적 표현은 전통과 현대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모임' 부분에서는 현대적 찬양으로 시작하여 회중의 마음을 열고, 이어서 공동 기도문(전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 '말씀' 부분에서는 성경 봉독과 함께 시편 교독(전통)을 포함시키고, 설교 후 응답으로 전통 찬송가를 부른다. '성찬' 부분에서는 감사 기도(전통 예전)와 함께 성찬을 나누며, 배경 음악으로 떼제 스타일의 반복 찬양을 사용한다. '파송' 부분에서는 현대적 찬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표현한다.

이러한 통합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각 요소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예배 흐름(liturgical flow)'의 설계이다. 전통 요소와 현대 요소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보완하며, 예배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서사를 형성하도록 세심한 기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배 기획팀이 목회자, 찬양 인도자, 예배 기획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회중이 전통적 예배 요소(교독, 신앙 고백, 시편 찬탕 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단순히 생소한 형식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각 예배 요소의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배학 강좌, 주보를 통한 예배 순서 해설, 소그룹에서의 예배 토론 등이 이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7.4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예배 구조 재편

현대 예배는 점점 개인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⁶⁷ "예배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교회의 삶이다." 따라서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적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회중 참여 확대: 응답송, 교독, 공동기도
- 소그룹과 예배 연계
- 예배 전 기도 모임 활성화
-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한 주중 예배 묵상 자료 제공
- 성찬 중심 예배 회복

⁶⁷ Schmemmann, *For the Life of the World*, 33.

· 세대 통합 예배 설계

세대 통합 예배의 실천적 방법으로는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하는 “가족 예배(family worship)” 월 1회 이상 시행, 청소년이 예배의 특정 부분(봉독, 교독, 기도)을 인도하는 기회 제공, 노년층의 신앙 증언을 예배에 포함시키는 “신앙 유산 전달” 순서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대 통합 예배는 단순히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에게서 신앙을 배우는 풍요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

특히 성찬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핵심 요소이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 됨”의 선언이며,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에서 성찬은 예배의 절정이었다. 현대 한국 교회가 성찬의 빈도와 의미를 회복할 때 예배 공동체성도 함께 회복될 것이다.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예배 구조 재편의 구체적 방안을 더 상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에서의 ‘응답적 요소(responsive elements)’를 확대한다. 교독문, 응답송, 공동 기도, 신앙 고백 등 회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순서를 늘림으로써, 예배가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적 대화가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성경 봉독 후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 우리의 빛이 되어 주소서”라는 짧은 응답구를 회중이 함께 말하는 것만으로도 참여감이 크게 향상된다.

둘째, ‘소그룹 예배(Small Group Worship)’와 주일 예배의 유기적 연결을 추구한다. 주중 소그룹 모임에서 다음 주일 예배의 본문을 미리 나누고 기도하며, 주일 예배 후 소그룹에서 설교 내용을 나누고 적용점을 찾는 사이클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주일 예배가 고립된 한 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한 주간의 신앙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셋째, ‘예배 전 기도 모임(Pre-Service Prayer)’을 활성화한다. 예배 시작

30 분 전부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다. 이 기도 모임에는 목회자, 찬양팀, 그리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간구한다. 이러한 기도의 토대 위에 드러지는 예배는 영적 깊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넷째, 예배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를 고려한다. 전통적인 극장식 좌석 배치는 회중의 시선을 무대(강단)로 향하게 하여, 설교자 중심의 일방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원형이나 원형 좌석 배치를 시도하거나, 최소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동체적 예배에 도움이 된다. 초대교회는 가정 교회에서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으며, 이러한 공간적 근접성이 공동체적 친밀감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성찬 빈도의 증가' 를 강력히 권고한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성찬은 월 1회 또는 분기 1회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매주 일, 심지어 매일 성찬을 행하였다(행 2:46). 종교개혁자들도 매주 성찬을 원하였으나, 당시 회중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타협적으로 빈도를 줄인 것이었다. 성찬은 공동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예배 행위이므로, 그 빈도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공동체성 회복의 핵심적 방법이다.

여섯째, '세대 통합 예배' 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한국 교회의 일반적 관행인 연령별 분리 예배(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장년 예배)는 각 세대의 필요에 맞는 예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회 전체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약화시키는 단점도 있다. 최소 월 1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리는 통합 예배를 시행함으로써, 세대를 초월한 하나의 예배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7.5 예배의 영성 회복: 감정에서 존재로

현대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감정 중심 신앙"이다.

유진 피터슨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⁶⁸ "현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종교적 경험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예배는 감정적 고양을 넘어서 존재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영성 회복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감정 → 헌신
- 경험 → 순종
- 소비 → 참여
- 개인 → 공동체

로마서 12장 1절은 이를 “산 제사”로 설명하며, 예배가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영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중 삶 전체를 형성하는 훈련의 절정이라고 가르쳤다.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은 주일 예배 개혁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적 영성 훈련과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예배는 주일의 1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헌신이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전인적 제자도의 회복이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영성 훈련의 구체적 실천으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의 기도와 성경 읽기(Daily Office), 식사 기도의 회복, 일주일 중 하나의 날을 안식과 예배에 헌신하는 안식일 영성, 정기적인 수련회와 묵상 모임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훈련들은 주일 예배가 일상의 절정이 되도록 하는 신앙 생활의 리듬을 형성한다.

⁶⁸ Eugene H. Peterson,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Grand Rapids: Eerdmans, 2005), 58.

영성 회복의 방향을 더 깊이 탐구하면, 예배와 영적 훈련(spiritual disciplines)의 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그의 저서 『영적 훈련과 성장(Celebration of Discipline)』에서 세 가지 범주의 영적 훈련을 제시한다: 내적 훈련(묵상, 기도, 금식, 학습), 외적 훈련(단순, 고독, 순종, 봉사), 공동체적 훈련(고백, 예배, 안내, 기념). 이 체계에서 예배는 공동체적 영적 훈련의 핵심으로 위치한다. 즉, 예배는 고립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영적 훈련 체계의 정점이자 결실이다.

이러한 이해는 현대 한국 교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주중의 개인적·공동체적 영적 훈련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주일 예배에서 깊은 영적 경험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예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예배의 영적 깊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중의 영적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적 훈련을 예배 생활과 연결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매일의 기도 시간(Daily Office)을 갖는다. 아침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은 예배적 삶의 기본 리듬을 형성한다. 둘째, 안식일의 영성을 회복한다. 주일을 단순히 교회에 가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의 리듬 안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날로 지키는 것이다. 셋째, 금식과 묵상을 통해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한다. 넷째, 봉사와 나눔을 통해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한다.

또한 예배의 영성 회복은 '안식'의 회복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현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교회마저 성도들에게 더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활동이 아니라 안식이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을 지어다”라고 권면하며, 이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에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예배에서의 침묵, 묵상, 기다림은 이러한 안식의 구체적 표현이다. 현대 예배가 끊임없는 소리와 활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안식을 잃어버린 현대 문화의 반영이기도 하다. 예배 안에서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마련하고, 서두르지 않는 예배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의 영성을 깊게 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7.6 결론적 제언: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핵심 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신학적·영적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환은 먼저 목회자와 예배 인도자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예배의 신학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설교와 교육을 통해 성도들과 공유할 때, 예배 공동체 전체의 문화가 변화된다. 예배 인도자들은 자신이 단순히 음악 공연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사역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성도들 각자가 예배의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되어야 한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적 헌신을 포함한다(막 12:30).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예배 회복의 원칙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될 때 말씀 중심 예배가 가능해지고, 말씀 중심 예배가 자리 잡을 때 공동체성이 강화되며,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 전통과 현대를 균형 있게 통합하는 창의적 예배가 꽃필 수 있다. 이 네 원칙은 분리된 항목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예배 회복의 전체 그림이다.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제언은 개별 교회 차원을 넘어 교단과 신학교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신학교 예배학 교육을 강화하여 목회자들이 예배의 신학적 기초를 깊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단 차원에서 예배 음악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신학적으로 검증된 찬양 목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회들 사이의 예배 자원 공유와 상호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예배 회복은 위로부터의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영적 갱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 교회의 목사와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스스로 깊이 연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본질을 탐구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추구할 때, 한국 교회의 예배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존 파이퍼는 예배의 궁극적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⁶⁹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이다." 즉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배로 귀결되며, 예배가 바로 설 때 교회도 바로 선다.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단계별로 더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 인식의 전환(Awareness Phase, 1-3 개월). 이 단계의 목표는 목회자와 핵심 리더들이 예배 갱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예배학 관련 서적 독서 모임, 예배 갱신 사례 교회 탐방, 외부 강사 초청 세미나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둘러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충분한 성찰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제 2 단계: 기초 교육(Foundation Phase, 3-6 개월). 이 단계에서는 찬양팀, 장로회, 소그룹 리더 등 교회의 중간 리더들에게 예배의 신학적 기초를 교육한다.

⁶⁹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Grand Rapids: Baker, 1993), 11.

예배의 정의와 본질, 시편과 다윗 모형, 예배의 공동체성, 전통과 현대의 관계 등 본 연구에서 다룬 핵심 주제들을 교육 과정으로 구성한다. 이 교육을 통해 예배 갱신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

제 3 단계: 점진적 도입(Introduction Phase, 6-12 개월). 이 단계에서는 예배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도입한다. 시편 교독의 정례화, 예배 전 침묵의 시간 도입, 신앙 고백(사도신경)의 정기적 사용, 성찬 빈도의 소폭 증가 등이다. 각 변화를 도입할 때마다 그 신학적 의미를 회중에게 설명하고, 변화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며 속도를 조절한다.

제 4 단계: 심화 발전(Development Phase, 1-2 년). 이 단계에서는 더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교회력에 기반한 예배 기획 체계 도입, 찬양 가사 신학적 검토 시스템 구축, 세대 통합 예배 정기 시행, 예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 단계에서는 예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예배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협력적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제 5 단계: 정착과 확산(Establishment Phase, 2-3 년 이후). 예배 갱신이 교회 문화의 일부로 정착되는 단계이다. 이 시점에서는 갱신된 예배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며, 다른 교회들과의 나눔과 협력을 통해 예배 갱신의 경험을 확산시킨다. 동시에 지속적인 자기 평가와 갱신을 통해 새로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한다.

이 5 단계 실행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인내와 기도'이다. 예배 문화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두르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바울의 권면-“모든 것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은 예배 갱신의 과정에도 적용된다. 질서 있고 점진적인 변화가, 급격하고 혼란스러운 변화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제 8 장 결론: 새로운 부흥을 위한 신앙 전통의 갱신

8.1 예배 갱신을 위한 지도자 교육 방향

예배 회복의 성패는 결국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신학적 역량과 영적 깊이에 달려있다. 따라서 예배 갱신을 위한 지도자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목회자 예배학 교육의 강화이다. 신학교 커리큘럼에서 예배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이론뿐 아니라 실천적 예배 인도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예배의 신학적 기초를 탄탄히 갖춘 목회자가 예배를 이끌 때, 교회 전체의 예배 수준이 향상된다.

둘째, 찬양 인도자의 신학적 훈련이다. 찬양팀 리더는 단순한 뮤지션이 아니라 예배 신학을 이해하는 사역자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찬양팀 대상 단기 예배학 세미나, 정기적인 신학 스터디, 그리고 성경과 예배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회중 예배 교육의 체계화이다. 성도들이 예배의 각 순서가 지닌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새 신자 교육, 세례 준비 교육, 정기적인 예배학 특강 등을 통해 예배의 문해력(liturgical literacy)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스스로를 가르친다.” 이 말처럼, 잘 구성된 예배 자체가 최고의 신학 교육이다. 예배가 신학적으로 풍요로울 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이 형성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배 갱신을 위한 지도자 교육을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면 다음과 같다.

목회자 대상 교육에서는 예배신학(theology of worship), 예배사(history of worship), 예배 실천(practice of worship)의 세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예배신학 영역에서는 삼위일체적 예배 이해, 성례전 신학, 예배와 선교의 관계 등을 다루고, 예배사 영역에서는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현대에 이르는 예배 전통의 발전 과정을 학습하며, 예배 실천 영역에서는 예배 기획, 예배 인도, 설교와 예배의 통합 등을 훈련한다.

한국 신학교의 현행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예배학 관련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교의학, 성경학, 설교학에 비해 예배학이 부차적인 과목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예배학 교육의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최소한 예배학 개론, 예배 음악, 예배와 성례전, 예배 실습 등 4개 이상의 예배 관련 과목이 필수로 편성되어야 한다.

찬양 인도자 대상 교육에서는 실습 중심의 접근이 효과적이다. 매 주간의 찬양 연습 시간에 30분간의 예배신학 학습 시간을 포함시키거나, 월 1회 찬양팀 전체 수련회에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찬양팀 리더가 매주 선곡한 찬양의 신학적 배경과 선곡 이유를 팀원들에게 설명하는 관행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신학적 사고가 찬양 사역의 일부가 된다.

회중 교육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주보를 통한 짧은 예배 해설, 예배 전 5분간의 예배 순서 설명, 새 신자 교육에서의 예배 소개, 소그룹에서의 예배 관련 토론, 교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예배 관련 콘텐츠 제공 등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이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의 의미는 한 번의 강의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내면화되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미국의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Worship(캘빈대학교 기독교 예배 연구소)은 예배 갱신을 위한 연구와 교육의 모범적 사례를 제공한다. 이 연구소는 학술 연구, 목회자 교육, 예배 자원 개발, 교회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전통의 교회들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배 연구·교육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교단을 초월한 예배 연구소가 학술 연구, 현장 교육, 자원 개발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면, 한국 교회 예배 갱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대 한국 개신교 예배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상호적 만남과 교제이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동시에 예배자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이다.

둘째, 시편은 예배 음악의 가장 풍부하고 안전한 원천이다. 시편은 수천 년에 걸쳐 검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의 언어이며, 인간의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신앙의 언어이다.

셋째, 예배의 공동체성은 타협할 수 없는 예배의 핵심 속성이다. 본회퍼가 강조하듯 "교회는 예배를 통해 비로소 교회가 된다." 초대교회의 경건한 예배 공동체가 로마 황제를 감동시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듯이, 오늘날도 경건한 예배 공동체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본 연구의 핵심 기여는 한국 교회 예배 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음악 장르의 문제가 아닌, 신학적 정체성의 위기로 진단한 점이다. CCM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검증 없이 예배에 도입되는 방식이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전통 찬송가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부를 때는 동일한 빈곤을 야기한다. 결국 예배 회복의 핵심은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자들의 신학적 성숙과 하나님 중심성의 회복에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예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떼제, 성공회, RSCM이라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 교회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예배 신학과 예배 실천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 하였다. 예배학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교회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 신학이어야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바는, 떼제, 성공회, RSCM이 각각 다른 신학적 전통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성, 공동체성, 그리고 전통과 갱신의 균형이다. 이는 이 원칙들이 특정 교단의 편견이 아니라 예배 자체의 본질에서 나오는 보편적 원리임을 시사한다.

넷째, 떼제 공동체, 성공회 전례, RSCM 등의 사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예배 갱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교회가 "전통 vs 현대"의 이분법적 선택을 넘어, 예배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창의적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교회 예배 위기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단순히 CCM 대 전통 찬송가라는 음악 장르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신학적 검증의 부재, 공동체성의 약화, 감성 중심 편향, 예배의 상품화 등 복합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다층적 분석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시편과 다윗 모형이라는 성경적 기초 위에서 예배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편의 신학적 풍요로움과 다윗의 예배 혁신 정신은 현대 예배 갱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성경적 토대이다. 이러한 성경신학적 기초 위에서 제시된 실천적 제안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적 변화가 아니라 신학적 갱신에 기반한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떼제, 성공회, RSCM 이라는 세 가지 실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이론적 논의를 실천적 차원으로 연결하였다. 이 세 사례가 서로 다른 전통에서 출발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하나님 중심성, 공동체성, 전통과 갱신의 균형을 강조한다는 발견은, 이러한 원칙들이 특정 교단의 편견이 아닌 예배의 보편적 원리임을 확인시켜 준다.

넷째,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예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의 예배 방향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과 한계, 하이브리드 예배의 신학적 과제, 기술과 본질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에 의존하고 있어, 현장 실험이나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검증이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천적 방향을 실제 교회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서구 신학자들의 이론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토착적 예배 신학의 구축이라는 과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한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 안에서 독자적인 예배 신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후속 과제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가지 사례(떼제, 성공회, RSCM) 외에도 정교회의 신비적 예배 전통, 오순절주의의 성령

체험적 예배, 아프리카 교회의 토착적 예배 등 더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예배 갱신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회의 전반적 갱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예배는 교회의 다른 사역들 - 교육, 선교, 교제, 봉사 - 과 분리될 수 없으며, 예배의 갱신은 이 모든 영역의 갱신과 맞물려 있다.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의 삶으로 확장될 때,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의 경험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예배와 삶의 통합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참된 예배 갱신의 열매이다.

8.3 제언: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향하여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성도의 상호교제이다. 온라인 환경이 필수가 된 시대이지만, 기술적 도구를 넘어 예배의 주인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⁷⁰

시편의 언어를 회복하고, 다윗의 모형에 따라 훈련된 예배자들을 세우며, 폐제와 성공회의 전통에서 배우고, RSCM의 교육 모델을 적용하여 차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온라인과 현장이 균형되게 이루어질 때 한국교회의 예배는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 논문이 한국 교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각지에서 예배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목회자들,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는 찬양팀, 깊이 있는 예배를 갈망하는

⁷⁰ 최현구, 「예배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98-110.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논문이 그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 신학적 기초와 실천적 방향을 제공하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한 가지 일을 여호와께 바라노니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시 27:4)라는 갈망이 공동체 전체의 마음에 심겨질 때, 성령께서 친히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연구의 여정을 마치며, 연구자는 예배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소망을 새롭게 한다.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거룩한 공간이다.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출 29:42-43). 이 확신 위에서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예배의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 오랜 준비와 헌신을 기울인 것처럼, 인내와 기도와 공동체적 결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된다. 참된 예배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며,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선교이다.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제언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회는 자신만의 고유한 '예배 정체성(worship identity)'을 확립해야 한다. 서구 교회의 예배 형식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 것도, 전통에만 머무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교회의 역사적 경험, 문화적 맥락, 영적 유산을 반영한 고유의 예배 신학과 실천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새벽기도 전통, 통성기도의 열정, 공동체적 나눔의 정신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예배적 유산이다.

둘째, 예배 갱신은 교회 지도자들의 먼저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예배의 신학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그 교회의 예배 문화가 변화된다. 찬양 인도자가 자신의 음악적 기술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우선시할 때, 회중은 그 진정성에 감동받는다. 예배 갱신은 프로그램의 변경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셋째, 한국 교회는 예배를 통한 세대 간 신앙 전달에 더욱 힘써야 한다.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은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이다. 젊은 세대가 예배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경험하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예배의 신학적 본질을 타협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 교회 예배의 갱신은 교회 연합(ecumenism)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개신교의 수백 개 교단은 각각 다른 예배 전통과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공통의 예배 원리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 간 예배 자원의 공유, 합동 예배의 정기적 개최, 예배학 연구의 공동 수행 등을 통해 분열을 넘어서는 예배적 연합을 추구할 수 있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의 예배 방향에 대한 지속적 성찰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은 예배의 형식에도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제시한다. 교회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해 신학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이 예배의 도구로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배 갱신은 궁극적으로 기도의 사안이다.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은 교회 갱신이 인간의 계획과 전략만이 아니라, 겸비함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짐을 상기시킨다. 한국 교회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회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확신한다.

참고문헌

1. 국내 서적

- 이성호.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서울: 좋은씨앗, 2020.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 홍정수. 『한국 교회 음악 사상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2. 번역 서적

- 로버트 E. 웨버/김지찬 옮김. 『예배학(Worship-Old and New)』.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로버트 E. 웨버/이승진 옮김. 『예배학(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구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알렉산더 슈메만/이종태 옮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서울: 복 있는 사람, 2008.
- 제임스 F 화이트/김석한 옮김. 『개신교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제임스 F 화이트/김운용 옮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18.
- 필립 제이콥 슈페너/모수환 옮김. 『경건한 열망』.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4.
- Robert H. Mitchell/홍정표 옮김. 『목회와 음악』. 서울: 에덴문화사, 1992.
- Teresa Berger/안선희 옮김.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William D. Maxwell/정장복 옮김.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서울: 쿤란출판사, 1998.

3. 외국어 원서

Bonhoeffer, Dietrich. *Life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1954.

Bonhoeffer, Dietrich. *Psalms: The Prayer Book of the Bible*. Minneapolis: Augsburg, 1970.

Bonhoeffer, Dietrich.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Macmillan, 1959.

Brueggemann, Walter. *Israel's Prais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Brueggemann, Walter. *The Message of the Psalms*. Minneapolis: Augsburg, 1984.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1. Grand Rapids: Baker, 1993.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New York: McGraw-Hill, 1964.

Nouwen, Henri J. M. *The Way of the Heart*.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1.

Paul W. Hoon. *The Integrity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Peterson, Eugene H.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Grand Rapids: Eerdmans, 2005.

----- . *Leap Over a Wall*. San Francisco: HarperCollins, 1997.

Piper, John. *Desiring God*. Portland: Multnomah, 2003.

- . *Let the Nations Be Glad*. Grand Rapids: Baker, 1993.
- Roger, Brother. *Taizé: Sources of Faith*. Chicago: GIA Publications, 2000.
- Schmemmann, Alexander. *For the Life of the World*.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73.
- . *Introduction to Liturgical Theology*.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66.
- Segler, Franklin M. *Christian Worship*. Nashville: Broadman Press, 1984.
- Stott, John. *Between Two Worlds*. Grand Rapids: Eerdmans, 1982.
- Sweet, Leonard. *Aqua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99.
- . *Postmodern Pilgrims*.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 Tozer, A.W. *The Knowledge of the Holy*. New York: Harper, 1961.
- Webber, Robert E. *Ancient-Future Worship*. Grand Rapids: Baker, 1999.
- .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Zondervan, 1994.
- Wesley, John.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1766.
- White, James F. *Christian Worship in Transition*. Nashville: Abingdon, 1976.
- .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 . *Protestant Worship*.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0.

4. 학위 논문 및 학술지

오대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목회학박사논문, Drew University, 2023.

최현구. 「예배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목회학박사논문, Drew University,

2025.

5. 통계 자료 및 기타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넘버즈」 69
(2020).

----- . "코로나 19 종식 후, '예전처럼 주일 현장 예배드리겠다' 78%."
「넘버즈」 108 (2021. 8. 20).